제주학연구 51

제주 해안마을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조사 연구

2018년 11월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하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연구요약

Ⅰ. 서론

○ 제주인은 바다의 일터를 '바다밧'(바다밭)이라 부른다. 뭍의 밭과는 달리 바다밧에서는 공동어로가 행해졌다. 그것은 바다밧이 마을의 공유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바다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함도 있다. 공동어로가 성공하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의 기본은 언어이고 이름이다. 그러므로 바다밧 이름은 공동어로를 위해 첫걸음인 것이다. 제주 연안 드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바다밧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풍향, 조류, 지형지물, 수산물 종류 등 바다 상황의 복잡함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화산섬에 살아야 하는 제주인은 뭍의 열악함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를 이어 바다밧을 일구어 왔던 것이다.

○ 2018년 현재, 제주에는 101여 개의 어촌계가 있다. 각 어촌계마다 대략 50~60여 개의 바다밧이 전승되고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제주의 바다밧은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바다밧들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내력을 전하고 있다. 또한 그 내력의 짜임을 통해 해안마을의 '자치와 공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의 도전과 인간의 응전이라는 인류 보편사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바다밧은 과거 유산에 머물기를 거부한다. 제주의 바다밧은 아직도 해녀와 어민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으며, 다가올 미래의 전망 속에서 자신의 내력이 새로운 '밧자리'로 짜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조천읍내 5개 해안마을인 신촌, 조천, 신흥, 함덕, 북촌의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를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해안마을 생활사의 총체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생산양식과 문화양식의 일반성을 '자치와 공존'이라는 가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토양과 해안 조건의 차이로 인한 생산양식의 특수성 조사를 통해 '자치와 공존'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갈등과 조정의 사례 등을 통해 '자치와 공존'은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신촌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신촌 바다밧 경계와 해녀의 어로기술
○신촌 동,중,섯동 육상 및 해저 지형의 특징과 어로기술
Ⅲ. 조천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조천 근대사와 관련된 바다밧 이름
○제주 해양 조류의 특성과 조천의 바다밧
Ⅳ. 신흥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조류와 바람이 만들어 낸 해녀의 어로기술
○신흥 개의 이름과 내력
Ⅴ. 함덕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함덕의 바다밧의 특징
○함덕 후릿그물의 역사 소개
Ⅵ. 북촌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육상 및 해저 지형이 만들어낸 해녀의 어로기술
○북촌 해녀의 문화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방법과 범위 ····· 3

Ⅱ. 신촌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 4

1. 큰물성창과 독머리 ····· 7
2. 자리밧 가늠 ····· 10
3. 숭어양식장 돈물 ····· 00
4. 두 개의 경계 ····· 00
5. 씰물빌레 ····· 00
6. 소금밧 ····· 00
7. 가늠과 헛숨 ····· 00
8. 노린하늬빌레 ····· 00
9. 남아있는 '원'들 ····· 00
10. 진드르와 혼바위 ····· 00

Ⅲ. 조천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 00

1. 고제소 ····· 00

2. 제주자리 ····· 00

3. 웨살바다와 조금바다 ····· 00

4. 조류가 붙인 이름 ····· 00

5. 시칩잇개 ····· 00

6. 구쟁기닥살 ····· 00

Ⅳ. 신흥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 44

1. 관콧 ····· 00

2. 지물지보름과 맞절 ····· 00

3. 돌런지 ····· 00
4. 도둑개 ····· 00

Ⅴ. 함덕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 00
1. 모살동네 ····· 00
2. 희룡이성창과 도릿개 ····· 00
3. 가지가른당 ····· 00
4. 멜굿 ····· 00
5. 바다밧 ····· 00
6. 후릿그물 ····· 00
7. 사시미 ····· 00
8. 관댓모살 ····· 00

Ⅵ. 북촌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 00
1. 서모봉 ····· 00
2. 무승기 ····· 00
3. 큰성창 ····· 00
4. 검섯개와 코지물질 ····· 00
5. 뱃쿠들 당쿠들 ····· 00
6. 다려 ····· 00
7. 계숙 ····· 00

Ⅶ. 결 론 ····· 00
1. 결론 ····· 00
1. 정책 제언 ····· 00

후 기 ····· 00

참고문헌 ····· 00
Abstract ····· 00

<그림 목차>

<그림Ⅱ-1>고광민의 신촌 중동 바다밧 조사 ····· 00
<그림Ⅱ-2>신촌 바다밧 이름 ····· 00
<그림 Ⅱ-3>신촌 전경 ····· 00
<그림Ⅱ-4>큰물성창 ····· 00
<그림Ⅱ-5>동카름성창 ····· 00
<그림Ⅱ-6>독머리 주변 ····· 00
<그림Ⅱ-7>터우 ····· 00
<그림Ⅱ-8>미네미동산 주변 ····· 00
<그림Ⅱ-9>돈물 주변 ····· 00
<그림Ⅱ-10>돈 ····· 00
<그림Ⅱ-11>두 개의 경계 ····· 00
<그림Ⅱ-12>씰물빌레 주변 ····· 00
<그림Ⅱ-13>큰코지 주변 ····· 00
<그림Ⅱ-14>상공에서 바라본 도두봉 ····· 00
<그림Ⅱ-15>노린하늬빌레 주변 ····· 00
<그림Ⅱ-16>노린하늬빌레 ····· 00
<그림Ⅱ-17>수물원 ····· 00
<그림Ⅱ-18>조바물원 ····· 00
<그림Ⅱ-19>동동원 ····· 00
<그림Ⅱ-20>흔적만 남은 산불틱원 ····· 00
<그림Ⅱ-21>대섬의 전경 ····· 00
<그림Ⅱ-22>주숭개 ····· 00

<그림Ⅲ-1>고광민의 조천 바다밧 조사 ····· 00
<그림Ⅲ-2>조천 바다밧 이름 ····· 00
<그림Ⅲ-3>고제소 주변 ····· 00
<그림Ⅲ-4>고제소 안의 용천수 1 ····· 00
<그림Ⅲ-5>고제소 안의 용천수 2 ····· 00
<그림Ⅲ-6>개낭개 주변 ····· 00
<그림Ⅲ-7>개낭개와 해녀들 ····· 00
<그림Ⅲ-8>남당머리 주변 ····· 00
<그림Ⅲ-9>남당머리코지와 새배코지 ····· 00
<그림Ⅲ-10>안여 주변 ····· 00
<그림Ⅲ-11>대섬바다 ····· 00
<그림Ⅲ-12>새배코지 주변 ····· 00
<그림Ⅲ-13>먹돌안개 ····· 00
<그림Ⅲ-14>시칩읫개 ····· 00
<그림Ⅲ-15>구쟁기닥살 ····· 00
<그림Ⅳ-1>고광민의 신흥 바다밧 조사 ····· 00
<그림Ⅳ-2>신흥 바다밧 이름 ····· 00
<그림Ⅳ-3> 관콧 주변 ····· 00
<그림Ⅳ-4>섬여주변 ····· 00
<그림Ⅳ-5>혹섬여 ····· 00
<그림Ⅳ-6>동바르코지 주변 ····· 00
<그림Ⅳ-7>도릿개 ····· 00
<그림Ⅳ-8>큰개 주변 ····· 00
<그림Ⅳ-9>마농개 주변 ····· 00
<그림Ⅴ-1>고광민의 함덕 바다밧 조사 ····· 00
<그림Ⅴ-2>함덕 바다밧 이름 ····· 00
<그림Ⅴ-3>모살동네 ····· 00

<그림Ⅴ-4>큰개 ····· 00
<그림Ⅴ-5>노릿질 ····· 00
<그림Ⅴ-6>올렛여 주변 ····· 00
<그림Ⅴ-7>희룡이성창 주변 ····· 00
<그림Ⅴ-8>도릿개 주변 ····· 00
<그림Ⅴ-9>소여 ····· 00
<그림Ⅴ-10>함덕 소재 당의 위치 ····· 00
<그림Ⅴ-11>족은사시미 샛사시미 ····· 00
<그림Ⅴ-12>큰사시미 주변 ····· 00
<그림Ⅵ-1>고광민의 북촌 바다밧 조사 ····· 00
<그림Ⅵ-2>북촌 바다밧 이름 ····· 00
<그림Ⅵ-3>서모봉 ····· 00
<그림Ⅵ-4>무승기 ····· 00
<그림Ⅵ-5>큰빌레 ····· 00
<그림Ⅵ-6>몬죽이알1 ····· 00
<그림Ⅵ-7>몬죽이알2 ····· 00
<그림Ⅵ-8>북촌 포구 ····· 00
<그림Ⅵ-9>북촌항 평면도 ····· 00
<그림Ⅵ-10>뒷물성창 ····· 00
<그림Ⅵ-11>검섯개 ····· 00
<그림Ⅵ-12>코지 주변 ····· 00
<그림Ⅵ-13>북촌포구 주변 ····· 00
<그림Ⅵ-14>북촌항 상공에서 바라본 다려도 전경 ····· 00
<그림Ⅵ-15>도파당 주변 ····· 00
<그림Ⅵ-16>우악절 주변 ····· 00
<그림Ⅵ-17>다려도 ····· 00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조선 숙종 때 제주 목사 이형상은 자신의 책 『남환박물』에 '검석속립'劍石束立이라는 문장을 남겼다. 해안가 사방 둘레에 검劍 같은 돌들이 묶인 듯서 있어서 조수 차에 상관없이 배 댈 곳이 귀하다고 한탄한 것이다. 육지 왕래가 가능한 큰 배를 대기 어려운 제주 해안의 험악함을 표현한 글로써 조선 관료의 고뇌가 담겨 있다.

이형상의 관점에서 눈을 돌려 다른 풍경을 보자. 배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제주의 해안 지형이 배의 입출항에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주 어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오랜 기간 전승된 바다 지식을 활용하여 '검석속립'을 방파제로 활용하지는 않았을까? 제주인의 어로활동 목적이 역외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마을자치경제와 역내 물물교환을 통한 자급자족이었다면 큰 배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 어민에게 '검석속립'은 이형상의 걱정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의 해안마을들은 각 마을마다 포구 2~3개 정도는 기본으로 운용하여 왔다. 많은 경우는 4~5개의 포구를 갖고 있는 마을도 있다. 이는 '검석속립'이 방파제일거라는 추정을 뒷받침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로활동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검석속립'은 한라산의 화산활동과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용암은 바다의 지형을 결정하기 이전에 뭍의 지형을 결정하고서 바다로 흘러 내렸다. 강수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에서 논농사가 어려운 이유는 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용암지대의 특성 때문이다. 제주는 결국 밭농사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어느 지역이건 밭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거름이다. 제주의 토양은 대부분 부박하여 곡식 소출량이 낮았다. 최대한 땅을 확보하여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농토가 늘어난 만큼 필요한 거름의 양도 늘어났다. 이것이 제주 밭농사에서 거름이 절박했던 이유이다. 제주의 주요한 거름은 '돗거름', '쇠거름' 그리고 '듬북'(거름용 해조류)이다. 일가一家의 일 년 식량을 충당하기에 돗거름, 쇠거름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거름 보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고 그 중 가장 유용했던 것은 듬북이었다. 1년에 두 차례 다량의 채취가

가능한 듬북은 '거름콩'에 비견될 만큼 양질의 거름이었다. 제주 밭농사의 주요 작물인 보리, 조, 메밀 성장의 절반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듬북이 키워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인은 조간대의 해안을 '갯곳'이라 부르고, 갯곳에서 수심 20~40m의 점심대를 '걸바당'이라고 부른다. 화산활동 당시 용암이 완만하게 흐른 산북지역에는 걸바당이 2km에 이르는 곳이 있고, 경사가 급한 산남지역에서도 400~500m까지 걸바당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드넓은 화산암반 지대와 연평균 20℃ 안팎의 따뜻한 제주바다가 만나면서 풍족한 바다자원이 형성된 것이다.

제주인은 바다의 일터를 '바다밧'(바다밭)이라 부른다. 뭍의 밭과는 달리 바다밧에서는 공동어로가 행해졌다. 그것은 바다밧이 마을의 공유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바다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함도 있다. 공동어로가 성공하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의 기본은 언어이고 이름이다. 그러므로 바다밧 이름은 공동어로를 위해 첫걸음인 것이다. 갯곳에서 걸바당에 이르는 드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바다밧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풍향, 조류, 지형지물, 수산물 종류 등 바다 상황의 복잡함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화산섬에 살아야 하는 제주인은 뭍의 열악함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를 이어 바다밧을 일구어 왔던 것이다. '검석속립'은 이형상의 국가중심적 고뇌 속에서 탄생한 문장이다. 하지만 뭍의 밭과 함께 마을의 자치경제를 떠받치던 '바다밧'은 바로 이 '검석속립'에서 태어난 것이다. 제주인은 '검석속립' 하나하나에 그 이름을 새겨 놓았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제주 바다에 감탄한다. 하지만 정작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은 물속에 잠긴 바다밧이 만들어 내고 있다. 2018년 현재, 제주에는 101여 개의 어촌계가 있다. 각 어촌계마다 대략 50~60여 개의 바다밧이 전승되고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제주의 바다밧은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바다밧들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마을의 고유한 내력을 전하고 있다. 또한 그 내력의 짜임을 통해 해안마을의 '자치와 공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의 도전과 인간의 응전이라는 인류 보편사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바다밧은 과거 유산에 머물기를 거부한다. 제주의 바다밧은 아직도 해녀와 어민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으며, 다가올 미래의 전망 속에서 자신의 내력이 새로운 '밧자리'로 짜여지기

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조천읍내 5개 해안마을인 신촌, 조천, 신흥, 함덕, 북촌의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를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다. 제주 바다밭 연구는 각 마을의 향토지를 통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바다밭 이름에 대한 병렬적 서술에 그치고 있어 해안마을 생활사 전반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해안마을 생활사의 총체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생산양식과 문화양식의 일반성을 '자치와 공존'이라는 가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토양과 해안 조건의 차이로 인한 생산양식의 특수성 조사를 통해 '자치와 공존'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갈등과 조정의 사례 등을 통해 '자치와 공존'은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안마을의 어장, 어법, 도구, 신앙의 유기적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바다밭의 연구 범위를 해녀와 어민들의 어장인 바다밭을 중심으로 하되, 당堂을 포함한 마을의 공유시설 그리고 용천수, 불턱, 원담(갯담)등 어로시설까지 확장하여 조사하려 한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1990년대 해안마을 생활사를 기록한 고광민의 미발표 자료,『해녀노트Ⅰ』,『바다밭이야기Ⅰ』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7~2018년 동안 이루어진 현장 조사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바다밭 조사연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마을의 과거 사진, 지도 및 드론 항공사진을 포함하였다.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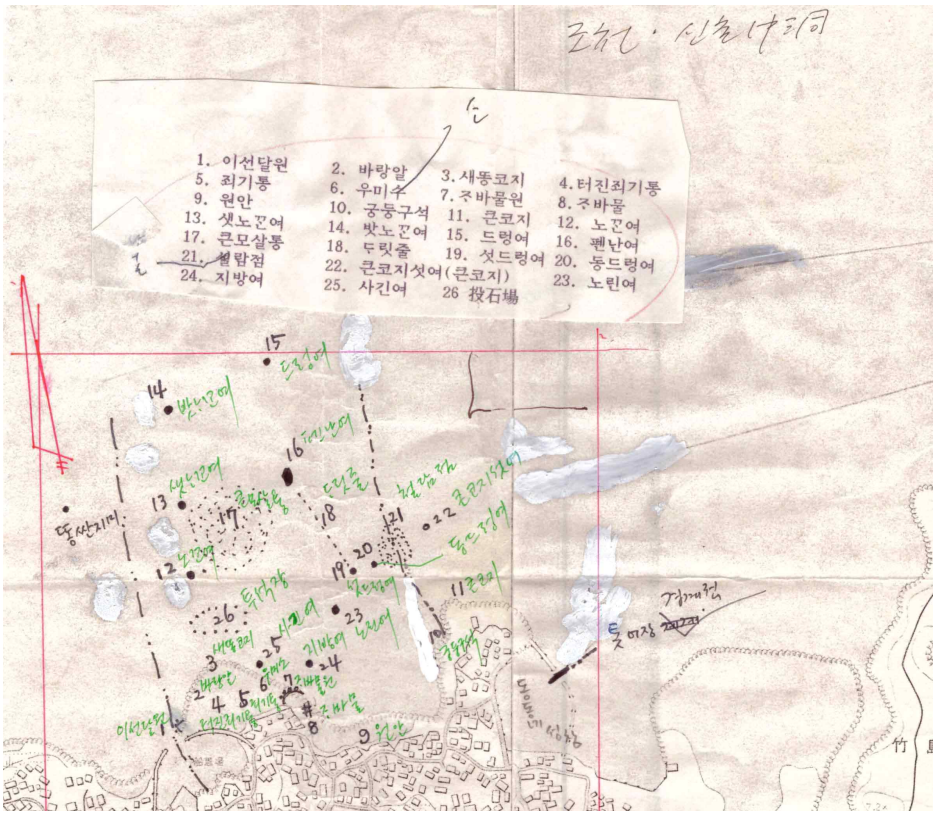
'바다밭'을 제주말의 소리 값에 맞춰 '바다밧'으로 표기하였다. 바다밧 이름을 포함하여 용어의 표기는 제주말을 기준으로 삼되,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 ᆞ '(아래아)는 'ㅗ'로 표기하였다.

Ⅱ. 신촌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신촌은 조천읍의 최서단 마을이다. 인접한 제주시 삼양동과는 원당봉을 사이에 두고 있다. 신촌은 고려 때 신촌현新村縣이 설치되었던 마을이며, 본풀이, 전설, 민요 등에서도 마을 이름이 등장할 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신촌 11개의 마을 중 해안마을은 셋이다. '큰물동네' 섯동(대수동), '상듯거리' 중동, '돌코짓동네' 동동이 '큰물성창'과 '동카름성창'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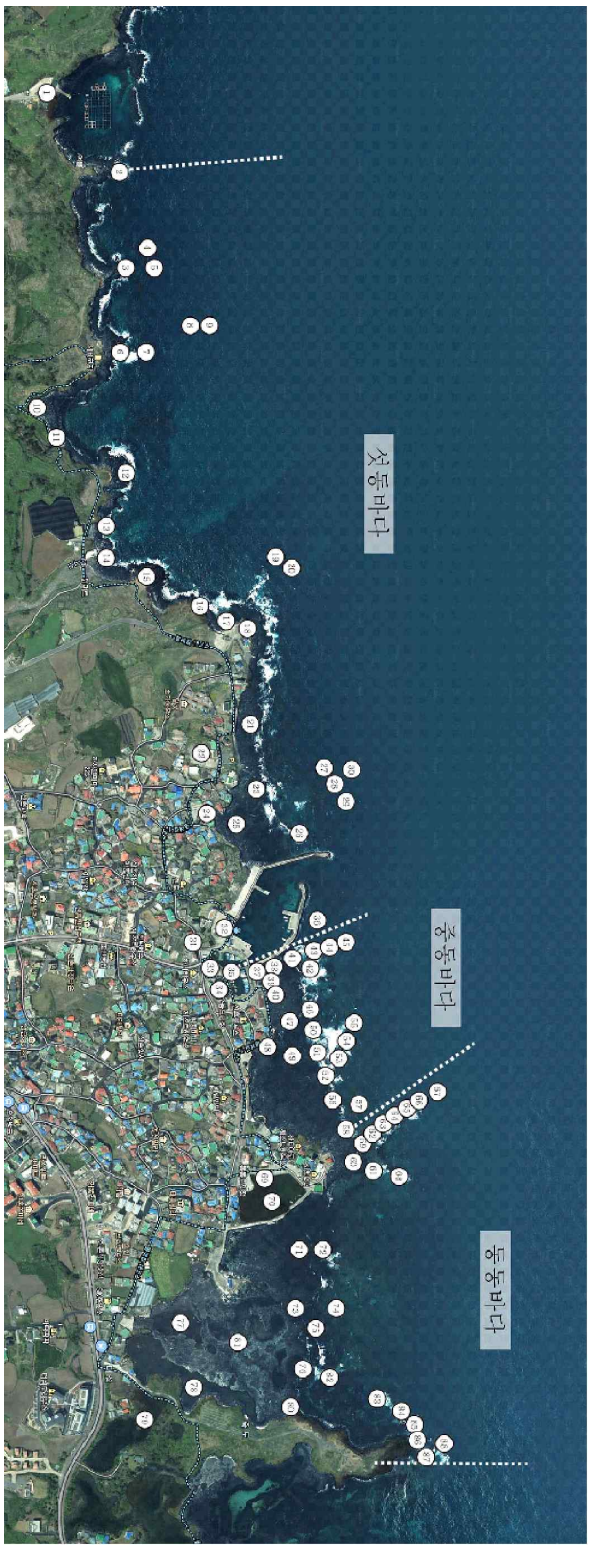
섯동바다는 '보오린여'에서 '큰물성창'까지
중동바다는 '큰물성창'에서 '동카름성창'까지
동동바다는 '동카름성창'에서 '대섬'까지

<그림 Ⅱ-1> 고광민의 신촌 중동 바다밭 조사[1)]



1) 고광민(1990-2000b) 참조

<그림 Ⅱ-2> 신촌 바다밭 이름[2)]



2) '다음'지도 켑쳐 후 바다밭 이름 기입

(1)엉물길
(2)보오린여
(3)볼락여
(4)볼락여쏠물팟
(5)볼락여들물팟
(6)상자릿여
(7)수애기물뿜는여
(8)도들봉난여
(9)도대난여
(10)산엿개원
(11)산엿갯도
(12)설피역
(13)배중콧
(14)고주물
(15)독머리
(16)망알
(17)앞개원
(18)미네미동산
(19)미네미몰래통바위
(20)미네미들물팟
(21)산불턱원
(22)엉물
(23)새개창
(24)수물
(25)수물원
(26)고는새여
(27)안드렁여
(28)고장여
(29)펜난여
(30)드렁여
(31)큰물당
(32)남당물
(33)큰물
(34)몰물
(35)큰물성창
(36)똥싼지미
(37)이선달원
(38)바랑알
(39)터진죄기통
(40)죄기통
(41)새똥코지
(42)큰모살통
(43)노꼰여
(44)샛노꼰여
(45)밧노꼰여
(46)사깃여
(47)우미소
(48)조바물
(49)조바물원
(50)지방여
(51)노린여
(52)섯드렁여
(53)도릿줄
(54)팬난여
(55)드렁여
(56)동드렁여
(57)철남점
(58)궁둥구석
(59)큰코지
(60)주숭개
(61)족은코지
(62)큰코지섯여
(63)지충돋은여
(64)도들봉난여
(65)베리오름난여
(66)샛여
(67)큰코지막여
(68)족은코지막여
(69)장읫물
(70)동카름성창
(71)동동원
(72)큰여
(73)도리불턱
(74)구릿여
(75)너븐여
(76)벌러진여
(77)소금밧
(78)발조개왓
(79)손조개왓
(80)흐리네촐리
(81)씰물빌레
(82)노린하늬빌레
(83)밧물여
(84)안물여
(85)눈씻는여
(86)고릿여
(87)코짓여
(88)곤빌레

1. 큰물성창과 독머리

신촌마을에는 (35)‘큰물성창’과 (70)‘동카름성창’ 두 개의 포구가 있다. ‘동카름성창’은 썰물 때 성창의 바닥이 드러나기에 먼 바다로 나가는 동, 중, 섯동 어민들은 ‘큰물성창’을 주로 이용한다. ‘큰물성창’은 동쪽으로 ‘새똥코지’를 의지하고, 서쪽으로는 멀리 ‘고는새여’를 의지하여 자리 잡았다. 큰물성창 안에는 식수가 가능한 ‘큰물’과 ‘몰물’이 있고, 서쪽에는 ‘남당물’이 있어서 포구 안으로 담수가 흘러넘친다. 담수는 배를 갉아먹는 ‘소’라는 벌레의 방충제 역할을 하기에 담수가 풍부한 큰물성창은 배의 복원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림 Ⅱ-3> 신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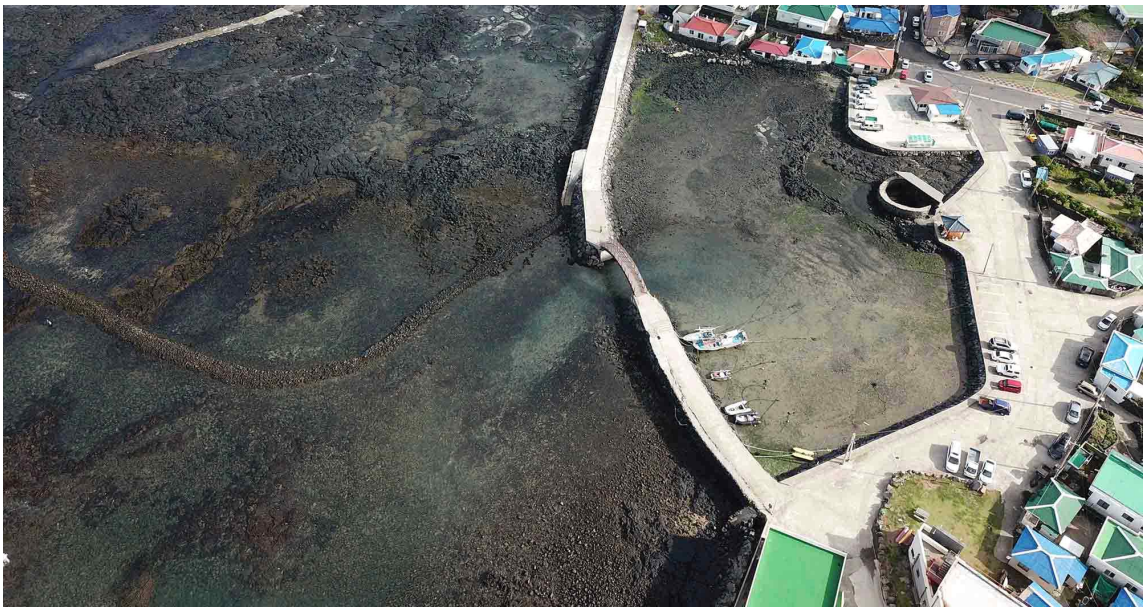
‘큰물’은 세 곳에서 용천수가 나온다. 자연히 이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큰물성창 인근 마을 이름이 대수동大水同인 이유이다.

<그림 Ⅱ-4> 큰물성창



(24)수물 (25)수물원 (26)고는새여 (32)남당물 (33)큰물 (34)몰물 (35)큰물성창 (39)터진죄기통 (35)큰물성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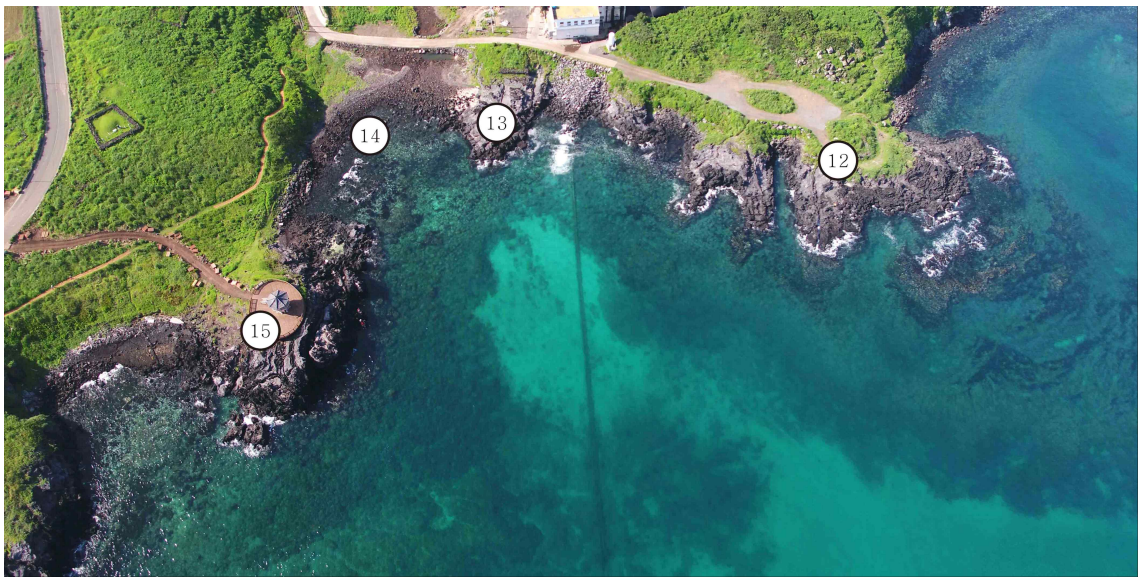
<그림Ⅱ-5> 동카름성창



썰물 때 바닥을 드러낸 동카름성창의 모습

신촌 섯동 바닷가 10.8m 높이의 절벽에 동산이 하나 있다. ‘독머리’라 부른다. 그 밑은 온통 모래밭이다. 지난날 이 모래밭은 먼 바다에서 멜싹(멸치떼)을 몰고 ‘고주물’까지 유인해 와서 잡았던 ‘후릿그물’터였다. (14)‘고주물개’는 멜(멸치)을 잡기 위해 구성된 어로조직의 포구였다. 지금은 ‘터우’를 대던 ‘새개창’과 함께 이름만 남았다.

<그림 Ⅱ-6> 독머리 주변



(12)설피역: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섦다’라고 말한다. 바위의 형태가 복잡하여 붙인 말인 듯싶다. ‘역’의 의미는 알 수 없다. 서귀포시 보목리 앞 바다 ‘섶섬’을 예전에는 ‘설피섬’이라 불렀다. 나무가 우거져 있기에 보목리 사람들은 터우를 타고 이 섬에 가서 소에게 먹일 ‘촐’과 나무를 구했다고 한다. (15)독머리:닭의 머리를 닮았다 독머리다. 원래 이 곳에는 닭 벼슬처럼 생긴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위 대신 정자가 들어서 있다. (13)배중콧이다.

<그림Ⅱ-7> 터우[3)]



터우는 때배, 테위, 테, 테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터우는 보통 삼나무로 만들었다. 하지만 오래 전에는 한라산 구상나무로 만들었다. 그 당시 제주 사람들은 구상나무를 구하기 위해 한라산 700~800m 고지까지 올라갔다. 베어낸 나무를 산북 사람들은 '도그내'(외도동 도근천)로 운반했다. 이 나무를 배에 싣고 다시 마을로 가서 터우를 만들었던 것이다(고광민b, 2004: 142~143). 터우는 3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해체하여 말린다. 말려서 물을 빼야 터우의 속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3) 사진은 신촌리 큰물성창에서 터우를 조립하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이다(사진: 고광민, 1984).

2. 자리밧 가늠

제주도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자리돔'. 자리돔은 일정한 자리에만 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그냥 '자리'라고 부른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벼랑을 이루는 숨은 바위에 정확히 닻을 묻고 그물을 드리워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자리밧[4]을 찾기 위해서는 뭍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가늠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바다로 나가, 서쪽 방향으로 도들봉[5]이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춘다. 그 지점을 유지하면서 연안 가까이에 있는 큰 바위가 보이는 지점으로 이동한다. 두 지점이 정확히 교차하는 바다의 위치가 '도들봉난여'라 불리는 자리밧이다. 도들봉이 나와 보이는 여라 하여 '도들봉난여'라 부른다. 멀리 있는 지점을 맞추는 것을 '산가늠'. 가까운 지점을 맞추는 것을 '곳가늠'이라 한다.

뭍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찾아가는 '자리밧'도 있다. '미네미몰래통바위'. 바닷 속의 모래밭을 찾고 모래와 수중 암초인 '여'가 맞닿는 지점을 닻을 내린다. 바닷 속의 지형지물로 자리밧을 찾는 가늠을 '물알가늠'이라 한다.

<그림 Ⅱ-8> 미네미동산 주변



(18)미네미동산 앞바다에 하얀 모래통이 (19)미네미몰래통바위이다.
(17)앞개원 (20)미네미들물팟

4) 자리밧 : 자리가 모이는 어장을 자리밧(자리밭)이라 부른다.
5) 도들봉 : 도두봉의 옛 말이다. 제주공항 서쪽에 있다. '도들봉난여'~ '도들봉' 거리는 13km이다.

3. 숭어양식장 돈물[6)]

신촌 섯동네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숭어 양식장이 있다. '돈물'이 그것이다. '돈물'은 해안선 조간대층에서 뭍으로 약 50m쯤 들어간 곳에 위치한다. 그 주위에는 사방으로 집이 들어서 있다. '돈물'은 뭍 위의 바닷물 호수이다. 바닷물이 간조 때 돈물은 만조를 이루고 바닷물이 만조 때 이 곳은 간조가 된다. 전체 500평 남짓하다. 뱀장어와 새우도 서식한다. 숭어는 자연산 어린 숭어를 잡아다가 이 '돈물'에서 일정 기간 키웠다. 양식의 기본은 종묘種苗다. 종묘의 방식은 인공과 천연이 있다. 이 곳 '돈물'의 양식은 숭어새끼를 잡아다가 양식하는 천연종묘법이었다. 동짓달이 되면 숭어 새끼들은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 크기가 2cm쯤 되면 해안 깊숙이 단물이 솟구치는 '수물' 주변으로 떼 지어 몰려든다. 숭어새끼들을 잡아다가 '돈물'에 풀어놓는다. 3년이 지나 40cm쯤 자라면 그물로 손쉽게 잡는다.

<그림 Ⅱ-9> 돈물 주변



(22)돈물 (24)수물 (25)수물원. 바다로 흐르는 용천수가 수물이다. 그 앞에 수물원, 그리고 그 앞에는 '고는새여'가 있다.

6) 고광민, 2004b:177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네도 동네 사람덜 여럿이서 계契를 해가지고 이디서 숭어를 양식해 낫어. 오널고뜬 날 공동으로 그물로 거려서 제수祭需로 갈라 낫주."

"1918년에는 양식 종류가 '굴', '김', '자라'뿐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766) 한국의 수산양식사水産養殖史에는 물고기를 양식한 역사가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신촌 섯동의 '돈물'은 어류魚類 천연양식의 생생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오늘도 '돈물'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다.

<그림 Ⅱ-10> 돈물 숭어잡이



1960년대 조천읍 신촌리 돈물, 아이들이 돈물에서 숭어를 한 쪽으로 몰고, 어른은 손그물, '족바지'로 숭어를 건져 올리고 있다.

숭어는 민물과 바닷물을 넘나드는 능력을 갖춘 물고기다. 특히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물통이면 산란장으로 제격이다. 제주시 내도동, '감은모살' 해안가에 '대물'이라는 물통이 있다. '대물' 위쪽에서는 담수가 흐르고, 바다에서는 간만이 차가 심한 무수기 동안 바닷물이 밀려든다. 숭어는 늦가을 '대물'로 들어와 산란한다. '대물' 속의 숭어알은 이듬해 장마철이 가까워 오면 10cm 쯤 자란다. 장마철 빗물에 쏟아져 냇물이 터질 때 어린 숭어들은 넘쳐나는 냇물을 타고 바다로 떠난다(고광민, 2004b: 176~177).

4. 두 개의 경계

조천읍 신촌리는 해안가에는 두 개의 포구(큰물 성창, 동카름 성창)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이 셋으로 분리되면서 바다도 셋으로 나뉘었다. 세 동네 어로집단마다 그들만의 바다밭을 갖고 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웃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는 있으나 무레질(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해녀들만은 '바다밭'을 엄숙히 구별한다. 그러기에 해녀들은 자기마을 '바다밭'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다른 마을 '바다밭'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중동과 동동의 경우는 다르다. 바다의 경계 두 개여서 그 주변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 '바다밭'을 혼동하면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과 동동은 갯가(조간대층)의 경계와 바다 속 경계를 구분한다. 갯가 경계는 '동카름성창'이고, 바다 속 경계는 '궁둥구석'이다. 중동과 동동 해녀들은 "우미는 궁둥구석, 톳은 동카름성창"이라고 말을 한다. 우미는 바다 속 2~3m에서 자라기에 '궁둥구석'부터 동동 해녀의 것이고, 톳은 갯가에 자라기에 '동카름성창'까지 중동 해녀의 것이라는 말이다.

<그림 Ⅱ-11> 두 개의 경계



(58)궁둥구석 (70)동카름성창

5. 씰물빌레

한 덩어리로 붙어 있으면서 평평한 암반을 제주말로 '빌레'라 부른다. 동카름성창에서 대섬의 중간지점인 '흐리네촐리'까지 하나의 넓은 암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씰물빌레'라고 부른다. 뭍과 조간대층 사이에서 드넓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씰물빌레'는 뭍의 특징과 조간대층의 특징을 두루 갖추었기에 그에 따른 독특한 어로활동을 만들어 냈다.

<그림 Ⅱ-12> 씰물빌레 주변



(77)소금밧 (78)발조개왓 (79)손조개왓 (80)흐리네촐리

6. 소금밧

제주는 소금이 귀한 곳이다. 이유는 첫째, 바닷물을 가둬 염전을 할 만큼 넓고 평평한 해안이 없다. 둘째, 제주 전 해안지대에서 용출하는 '용천수'(담수)로 인해 제주해안 인근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낮다. 하지만 '씰물빌레'는

이러한 제주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곳이다. 먼저 씰물빌레 소금밧 주위에 용천수라 할 만한 곳은 '장읫물' 한 곳. 소금밧은 '흐리네촐리'를 통해서만 바닷물이 고이기 때문에 '장읫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리고 조천의 용천수는 거대한 대섬이 막고 있어 씰물빌레 안에는 담수가 섞이지 않은 바닷물이 고인다. 둘째, 씰물빌레는 염전을 할 만큼 충분히 넓고 평평하다는 것이다. '씰물빌레 소금밧'은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사리' 때 바닷물을 공급받는다. 사리는 한 달에 두 번. 소금밧에 고인 바닷물은 빨리 증발해 버린다. 말라붙은 소금밧의 바닷물 공급원은 빌레 앞쪽에 고인 바닷물이다. 소금밧 지대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고였다 빠지기를 반복한다. 이 물을 수시로 퍼다 나른다. 씰물빌레에서 '씰물'은 염전에 쓰일 물이란 뜻이다. 이 넓은 빌레의 이름을 그리 지은 것은 제주에 소금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일 것이다. 씰물빌레 소금밧이 1년 동안 생산해 내는 소금은 434명의 1년 치 사용분이다. 1910년 당시 소금 자급율 23.6%이다.

7. 발조개왓과 손조개왓[7)]

제주에는 한반도의 연안과 같은 펄모래 밭(뻘밭)이 거의 없다. 아주 드물지만 성산에는 제법 있고, 신촌 동동 씰물빌레에는 조금 있다. 바닷물이 씰물빌레 '발조개왓'을 지나 '손조개왓'까지 밀려들어온다. '발조개왓'를 달리 '괸물'이라 하는데 고인물이란 뜻이다. 이 곳은 목이 좁아 한 번 들어온 바닷물은 썰물이 되어도 천천히 빠져 나가게 된다. 두 조개왓의 바닥에는 펄모래가 깔려있다. 펄모래 속에는 검은빛을 머금은 조개가 깃들어 산다. 외양성 바다밧에서는 보기 드문 가무락 조개이다. 제주 사람들은 조개 모양이 말발굽을 닮았다 하여 '몰굽조개'라고 한다. 썰물 때라도 발조개왓은 1m의 수심을 유지한다. 맨발로 바닥을 비비다 보면 조개껍질의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손으로 끄집어내어 그릇에 담는다. 발을 비벼 조개를 잡는 밧이라 하여 발조개왓이다. 손조개왓은 50cm 정도의 수심이 유지된다. 수심이 얕아서 손으로 펄바닥을 후비기만 해도 몰굽조개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오염되어 조개줍기는 옛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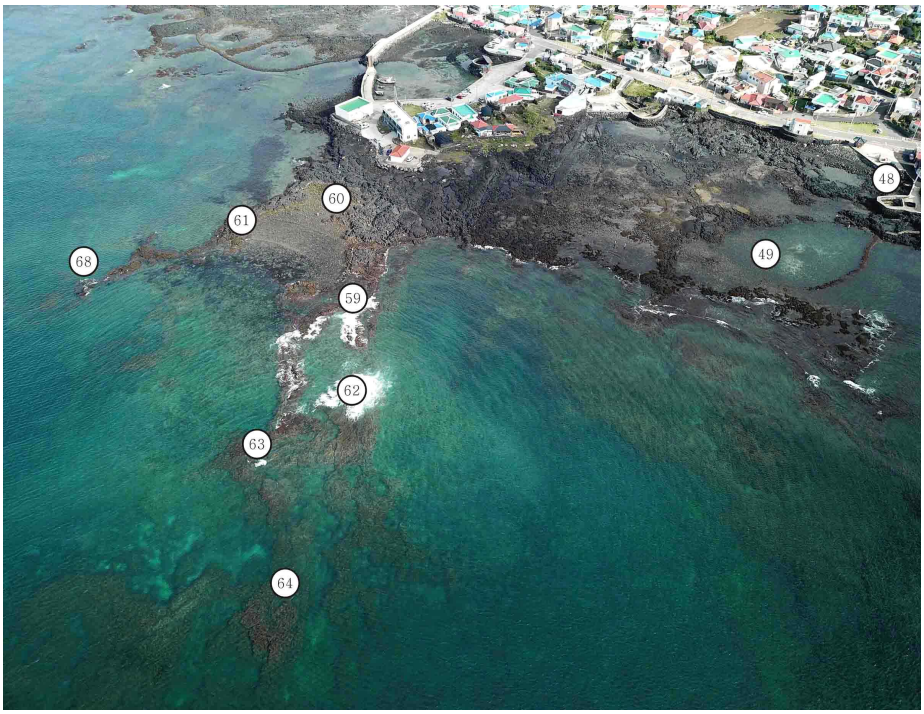
7) 왓과 밧 : 밭을 '왓' 또는 '밧'이라 부른다.

8. 가늠과 헛숨

‘큰코지’와 ‘족은코지’의 용암 줄기는 바다 속까지 이어진다. 큰코지는 큰코지섯여-지충돋은여-도들봉난여-베리오름난여-샛여-큰코지막여까지, 족은코지는 ‘족은코지막여’까지 이어진다. 용암이 흐르다가 멈추었거나, 해녀의 물질이 가능한 수심 15m 정도의 바다밧 중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여라 하여, ‘막여’라 했을 것이다. 해녀들의 말로는 열 발 수심, 15m 되는 바다밧이다. 이들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해녀를 두고 ‘상군’이라 했다. 망망대해 깊은 바다밧을 찾아가는 데에는 그만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멀고 깊은 바다밧을 찾아가는 지혜가 바로 ‘가늠’과 ‘헛숨’이다

해녀의 가늠기술이 바다밧 이름에 새겨져 있다. ‘도들봉난여’, ‘베리오름난여’, ‘개발른여’가 바로 그것이다. ‘도들봉난여’는 도들봉(도두봉)이, ‘베리오름난여’는 베리오름(별도봉)이 나와 보이는 ‘여’이다. ‘개발른여’ 또한 뭍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가늠에서 비롯되었다. 동카름성창 입구인, ‘개창’이 똑바로 보인다 하여 ‘개발른여’인 것이다.

<그림 Ⅱ-13> 큰코지 주변



(48)조바물 (49)조바물원 (59)큰코지 (60)주섞개 (61)족은코지 (62)큰코지섯여 (63)지충돋은여 (64)도들봉난여

<그림 Ⅱ-14> 상공에서 바라본 도두봉



'도들봉난여' 상공에서 바라본 도들봉(도들봉)과 베리오름(별도봉). 신촌에서는 도두봉보다는 별도봉이 더 가까이 있지만 해녀의 시점에서 별도봉을 보려면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 별도봉이 해안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신촌 섯동 절벽에 가로막혀 있어 해녀의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은 수면보다 높은 상공에서 촬영하였기에 별도봉이 보이고 있다.

가늠만으로 바다밧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열 발 깊이의 바다밧은 물 위에서 그 사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헛숨으로 알아내야 한다. 뭍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대강의 위치를 가늠하고 다시 자맥질하여 바다밧 위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찾아낸다. 이때의 자맥질을 '헛숨'이라 한다. 물건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밧을 찾으려는 자맥질이라 '헛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헛숨' 한 번만으로 바다밧을 찾는 일은 흔치 않다.

한 해녀가 어렵게 여를 찾았다고 해도, 조용히 손짓을 하거나 묵묵히 자맥질을 할 뿐이다. 그쯤 되면 같이 간 해녀는 '여를 찾았겠거니' 짐작하고 그리로 조용히 따라 가서 일을 한다. "큰코지막여더레 강 여 촛앗져 어떵햇져 떠들어가민 요왕님이 여를 감추와븐댄 해여(큰코지막여 근처에 가서 '여'를 찾았다, 어쨌다, 떠들면 용왕님이 여를 숨겨 버린다고 한다)." 해변과 달리 깊은 바다에서의 물질은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9. 노린하늬빌레

씰물빌레 앞에는 물속의 숨은 바위가 있다. 그 바위는 최간조기 때 서너 평의 봉우리만 모습을 보일 뿐 그 자락은 늘 물속에 잠겨 있다. 그 봉우리에는 '톳'이 자라고, 물속에 잠긴 드넓은 등성이는 모두 '우미밧'이다. 우미가 자라면 평균 수심 2~5m가 되는 셈이다. 숨은 바위로 얕으면서도 드넓은 이 바다밧을 '노린하늬빌레'라 한다. '노린하늬빌레'는 어린 해녀들이 물질을 익히기에 썩 좋은 바다밧이다. 동시에 이제는 멀고 깊은 바다에서 일할 수 없는 할머니 해녀들의 바다밧이기도 하다. 동동해녀들은 '노린하늬빌레'에서 물질을 익히고, 중군 상군이 되어 먼 바다까지 나가 작업을 하다가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면 다시 '노린하늬빌레'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는 이곳에서 할머니 해녀들만 일할 뿐 어린해녀를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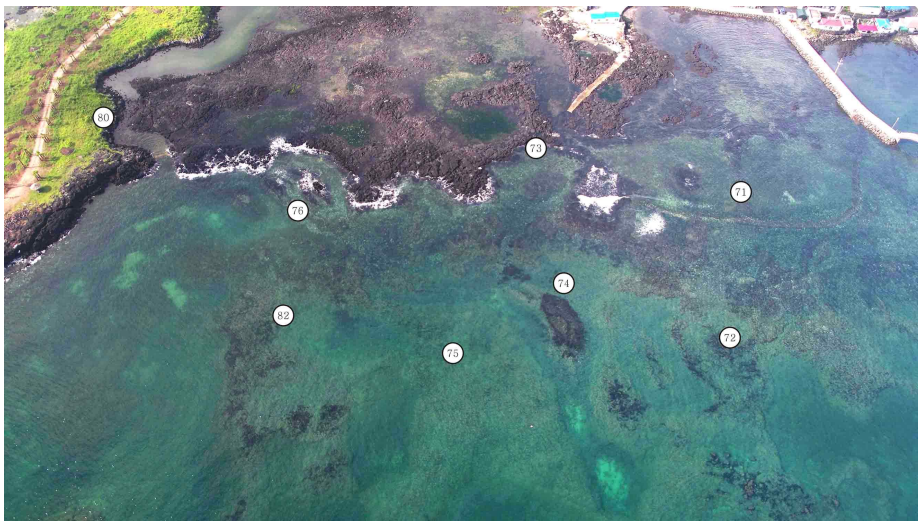
"우리 열늬설에 처음 메역조문 호레 나갑네다. 노린하늬빌레트레
바당서 아맹 얼러봐야 애기들이 메역 얼마나 건져집니까?
어른덜신디 메역 호꼼 빌젠 지들커 주워가민 큰메역 서너 꼴렝이썩 줍네다게.
'머리 호라' 해멍.
큰메역 하나를 의지해서 족은 메역을 이어 부쳥 몰리우믄 메역 혼낭이 됩니다."

우리 열네 살에 처음 미역을 따러 나갑니다. 노린하늬빌레에
바다에서 아무리 용을 써 봐야 어린 것들이 미역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른들에게 미역 조금 얻어 볼까 하고 '지들커[8]'를 주워 가면
미역낭[9]에 쓸 '머리' 하라고 큰 미역 서너 개 씩 줍니다.
큰 미역 머리에 의지하여 작은 미역을 이어 붙여 말리면 미역 혼낭(한 낭)이 됩니다.

8) 해녀들은 물질 중간에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뭍으로 나와 불턱에서 불을 피운다. 불을 피우기 위해 자기만 씩 가지고 오는 땔감용 나뭇가지를 '지들커'라 한다. 신촌의 미역조문(물질하여 미역을 따는 일)은 음력 2월부터이다. 음력 2월의 바다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을 때이다.

9) 미역을 말리면 나무처럼 딱딱하다 하여 말린 미역을 미역낭이라 한다. 미역낭의 기본 단위는 '혼낭'이다. 해녀들은 머리(미역 뿌리) 없는 미역낭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해녀들은 숨이 짧아 미역 뿌리까지는 케지 못하고 미역줄기만을 뜯어온 것이다.

<그림 Ⅱ-15> 노린하늬빌레 주변



(71)동동원 (72)큰여 (73)도리불턱 (74)구릿여 (75)너븐여 (76)벌러진여 (80)흐리네촐리 (82)노린하늬빌레
'도리불턱'은 썰물 때 물이 빠져나면 불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둥그렇게 생긴 자연적 돌담이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림 Ⅱ-16> 노린하늬빌레



제주민속학자 한 분은 하늬방향이 노려(내려) 앉아서 '노린하늬'라 부른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았다. 위 사진 촬영일은 2018.5.17. 오후5시. 중동바다가 최간조기때 찍은 사진이다. 사진의 중앙 왼쪽 상단에 단속적으로 잡힌 물보라 6개는 '노린하늬빌레' 봉우리에 부딪혀 생긴 파도이다. 파도의 방향과 해저지형을 볼 때 하늬(서북) 방향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던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3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앞 200m 해상에서 물질하던 고모씨(80)가 의식을 잃고 물에 떠오른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2018년 7월 9일 경향신문)'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앞 200m 해상이 '노린하늬빌레'라는 것을 신촌 동동 해녀들이 전해주었다.

10. 남아있는 '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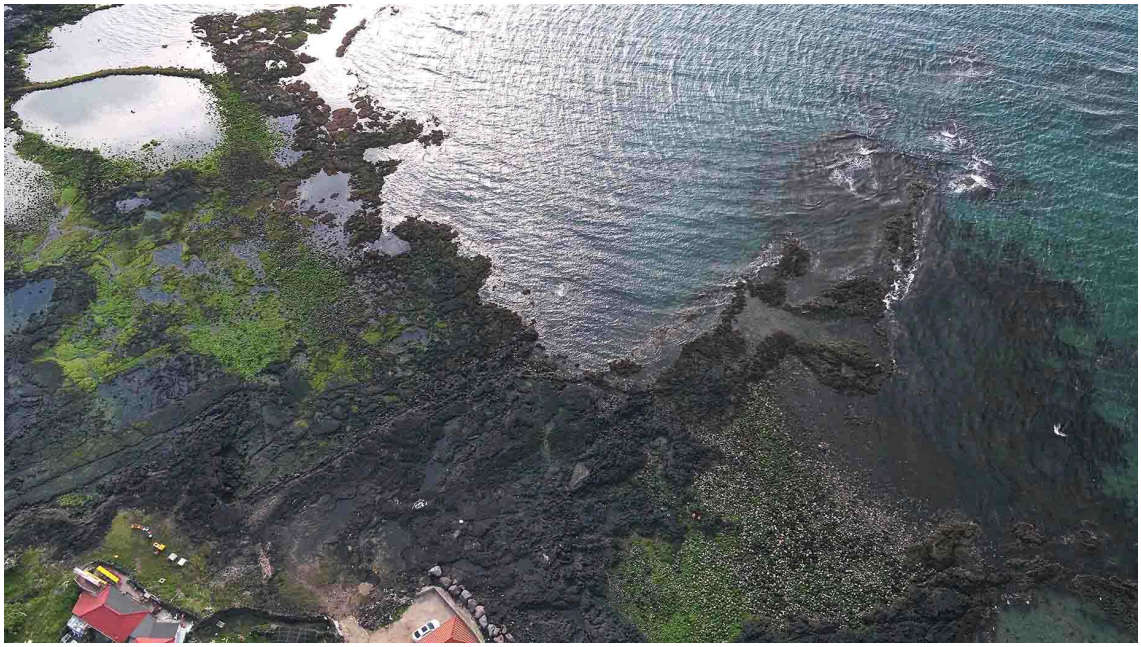
제주도 연안 바닷가를 따라 원垣이 늘어서 있다. '원'은 돌 많은 섬에서 돌로 담을 쌓고 물길을 따라 밀려든 고기를 가둬놓고 잡는 '돌그물'이라 할 수 있다. 집어등을 밝히고 들망으로 먼 바다에서부터 고기를 잡아버리는 어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 마을의 원들은 원래의 몫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기떼가 몰려들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신촌 연안에는 8개의 원이 있었다. 섯동의 '산엿개원' '앞개원' '산불턱원' '수물원' '남당물원'. 중동의 '이선달원' '조바물원' 그리고 동동의 '동동원'. 8개의 원 중에서 '산엿개원' '남당물원' '이선달원'은 방파제 공사로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원은, '앞개원' '수물원' '조바물원' '동동원' 4개이다. 그리고 '산불턱원'은 돌담이 유실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림 Ⅱ-17> 수물원



<그림 Ⅱ-18> 조바물원





아래 사진: 고광민(1996)제공

<그림 Ⅱ-19> 동동원





아래 사진: 고광민(1997) 제공

<그림 Ⅱ-20> 흔적만 남은 산불턱원



아래 사진: 고광민(1997) 제공

11. 진드르와 혼바위

신촌 섯동의 해안선 길이는 1.5km이다.[10] 반면 중동은 350m, 동동은 450m이다. 섯동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낙폭이 큰 절벽이 많아 조간대층의 폭이 매우 좁다. 해조류 서식공간이 협소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만큼 *긴 해안선이 필요했다. 반면 신촌 중동과 동동의 해안선은 섯동에 비해 짧다. 하지만 넓은 빌레가 바다 쪽으로 펼쳐져 있고, 1000평이 넘는 바다밭들이 빌레를 채우고 있기에 짧은 해안선을 보충하고도 남는 것이다.

지방여는 썰물 때 걸어갈 수 있는 여우다. 수심 혼 2m쯤

(지방여는 썰물 때 걸어가는 여입니다. 수심 한 2m쯤)

노린여는 노려가는 여마심. 수심 2~3m

(노린여는 내려가는 여입니다. 수심 2~3m)

거기는 아주 펜안합네다. 크고 널르고, 혼 1500평 쯤 되카? 거기는 안펜난여, 밧펜난여랜 해그네, 안펜난여는 호꼼 동산지고 밧펜난여는 멘스름호고. 물 존 때 강 닷줄 놓아보민 안펜난여는 10m 정도, 베낏디로 나가민 12~13m

(거기는 아주 편안합니다. 크고, 넓고, 한 1500평 쯤 될 겁니다. '안펜난여', '밧펜난여'라고 해서, '안펜난여'는 조금 동산이 있고, '밧펜난여'는 납작하고 그럽니다. 물이 잔잔할 때 가보면 '안펜난여'는 10m 정도, 밖으로 나가면 12~13m)

얼마 짚지 아니홉네다. 밧노꼰여랜 해봐야 10m 정도.

(얼마 깊지 않습니다. '밧노꼰여'라고 해봐야 10m 정도.)

드렁여는 펜안혼 여우다. 수심 15m 정도. 조금 비스름혼디는 이서도 맨짝혼 여우다. 혼 1천평 정도. 거기 가쟁해민 곳디서 혼 400m정도 가사 나와

('드렁여'는 편안한 여입니다. 수심 15m 정도입니다. 조금 경사가 진 곳은 있어도 편편한 여입니다. 한 1천평 정도. 뭍에서 한 400m 정는 헤엄쳐 가야 여가 나옵니다.)

10) 신촌 섯동, 중동, 동동의 해안선과 조간대층의 관계를 논하기 위한 장이므로, 신촌 섯동 해안선이 지금처럼 길어진 데에 대한 논의(영장올림과 해수역 귀속의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한다.

<그림 Ⅱ-21> 대섬의 전경



대섬의 전경 : 사진에서 대섬 오른쪽이 신촌이고 왼쪽이 조천이다. 대섬 왼쪽에는 우미가 많이 자라서 '우미소'라 불리는 바다밭이 있고, 오른쪽에는 '씰물빌레', '너븐여' 등 우미가 자라는 바다밭이 많다. 우미는 수심 2~5m에서 자란다.

제주 연안 바다 속은 돌무더기나 암반으로 깔려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모래밭이 있다. 이를 통틀어 걸바당이라 한다. 걸바당을 넘으면 개펄로 이루어진 펄바당. 신촌마을 사람들은 걸바당과 펄바당의 경계선을 '혼바위'라 부른다. 포구에서 혼바위까지 거리는 5.5km. 신촌마을 연안 바다가 온통 해녀와 어부의 바다밭인 셈이다. 제주시 동쪽으로 달려보자. 삼양동을 지나서 신촌을 벗어나기까지 드넓게 뻗은 밭들이 보인다. 이 일대를 '진드르'라 한다. '진드르'의 완만한 흐름은 중산간 와산마을을 넘어 기시네오름에서 시작된다. 우연일까. 신촌마을 포구를 기점으로 혼바위까지 거리와 기시네오름까지 거리는 같다(고광민, 1992).

한라산 용암은 '기시네오름[11]'을 기점으로 완만한 경사로 흐르면서 신촌 지경에서 '진드르[12]'를 만들었다. 그 용암이 신촌 앞바다를 넘어 5.5km '혼바위'까지 흐른 것인지는 이 글에서 증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드르'의 완

11) 조천 와흘리 소재 '기시네 오름'은 해발200m의 높이에 위치해 있다. 한라산 용암은 '기시네'에서 신촌까지 5.5km를 흐르면서 200m의 고저를 만든 것이다. 400m 앞바다의 수심이 15m라는 해녀의 증언에 따르면 육지와 해저면의 기울기 차이는 거의 없다.

12) 진드르 : 삼양동을 지나 신촌마을의 밭들이 드넓게 펼쳐진 평야지대. 일제시대에 '정드르' 비행장(현 제주공항)과 '알드르' 비행장이(대정) 있었다. 제주인들은 '진드르' 비행장 공사로 노역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만함이 신촌 바다의 완만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해녀들의 진술이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완만함이 신촌 바다밧의 넉넉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다에서 풍요를 건져 올리고 있는 해녀들의 존재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그림 Ⅱ-22> 주숭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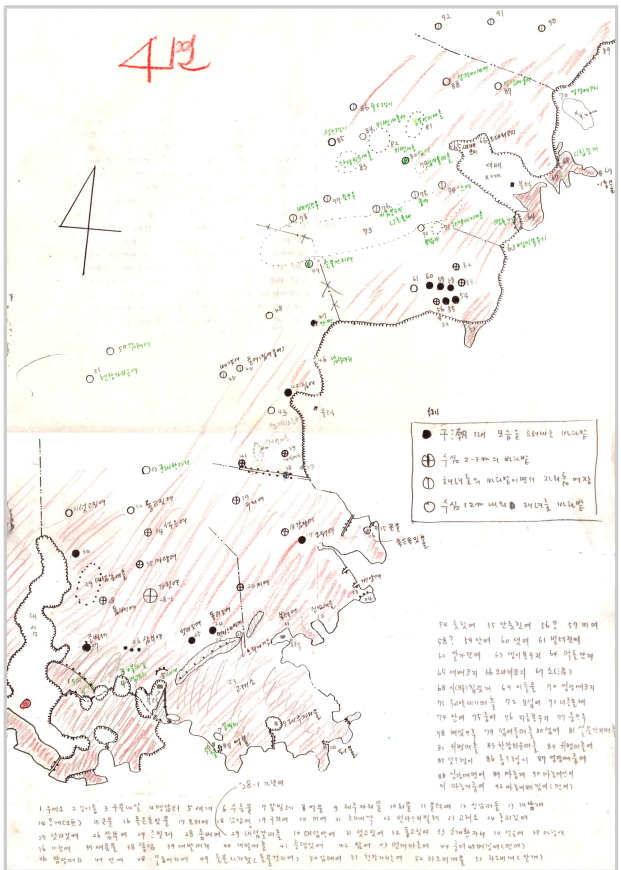
주숭개는 바다로 뻗어나간 용암이 '족은코지'이다. 제주에서는 해안으로 나온 곳을 '코지', 들어간 곳을 '개'라 한다. '주숭개'는 '큰코지'와 '족은코지' 사이의 '개'다. '주숭 같은 눈물'이란 표현이 있다. '주숭'은 염주를 이르는 제주말이다.

Ⅲ. 조천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조천은 부산, 인천과 함께 조선의 3관館 중 하나로 조천관朝天館, 조천진朝天鎭, 금당포金塘浦라 불렸다. 제주로 들어오는 출입항인 조천은 조선시대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 문물文物 교류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조천은 오래 전부터 상업이 발달했지만,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업활동은 여타의 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조천은 전체 7개의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상동, 중상동, 하동, 중동 4개의 해안마을이 '개낭개'(큰물성창)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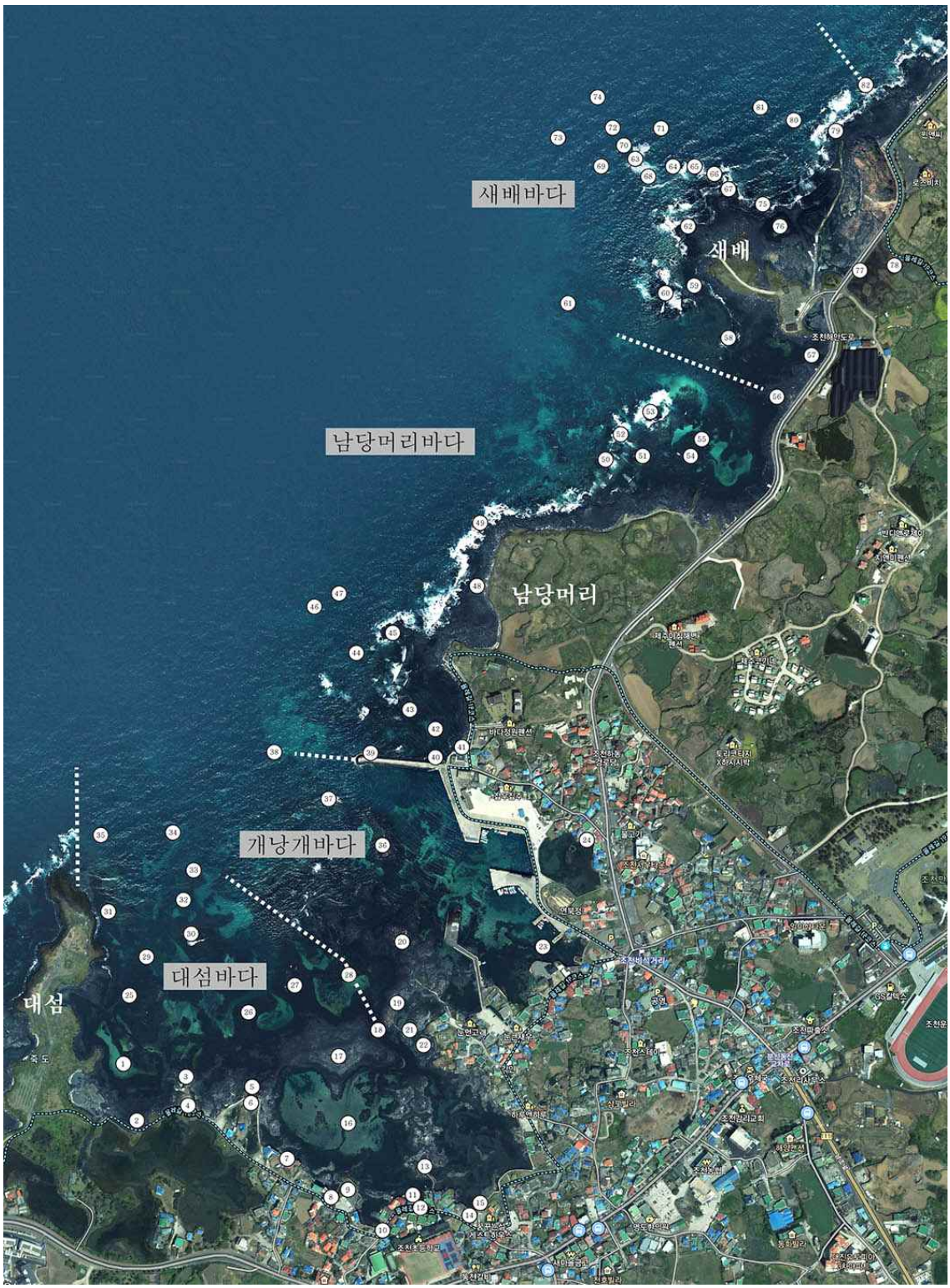
상동, '대섬바다'는 '대섬'에서 '미여'까지
중상동, '개낭개바다'는 '미여'에서 '방파제'까지
하동, '남당머리바다'는 '방파제'에서 '생이봉우지'까지
중동, '새배바다'는 '생이봉우지'에서 '넙짝빌레'까지

<그림 Ⅲ-1> 고광민의 조천 바다밭 조사[13)]



13) 고광민(1990-2000b) 참조

<그림 Ⅲ-2> 조천 바다밭 이름 14)



14) '다음'지도 켑쳐 후 바다밭 이름 기입

(1)우미솟개
(2)깅이통
(3)구물내알
(4)멩감터
(5)새개
(6)불턱
(7)절물
(8)수룩물(여)
(9)수룩물(남)
(10)알물
(11)엉물(남)
(12)엉물(여)
(13)제주자리물
(14)새물
(15)두말치물
(16)고제소
(17)먼자도리빌레
(18)흐리네깍
(19)신남머들
(20)불턱
(21)신남머들물(남)
(22)원서방개
(23)개낭개
(24)큰물
(25)존빌레
(26)섯괴깃여
(27)동괴깃여
(28)미여
(29)돔베여
(30)가릿여
(31)대섬막여
(32)마당여
(33)석은여
(34)동고짓여
(35)섯고짓여
(36)오저여
(37)구리여
(38)군대환자리
(39)풍댕잇여
(40)똥섬
(41)세콧물
(42)개발머리
(43)개발머흘
(44)먼개바른여
(45)짐여
(46)베낏여
(47)중여
(48)남당머리
(49)남당머리코지
(50)벌러진여
(51)미여
(52)중여
(53)안여
(54)두칫여
(55)할망여
(56)생이봉우지
(57)먹돌안개
(58)새가달여
(59)뒈약세기머흘
(60)보섭여
(61)들물건지여
(62)새배코지
(63)섬여
(64)막여
(65)중여
(66)안여
(67)오다리코지
(68)섬여통머흘
(69)한장틔운머흘
(70)귀벳머흘
(71)쏠물건지머흘
(72)귀벳머흘여
(73)섯도랭이
(74)동동랭이
(75)성봉이개
(76)알개
(77)시칩읫개
(78)이들물
(79)엉장메코지
(80)엉장메중여
(81)엉장메먼여
(82)넙짝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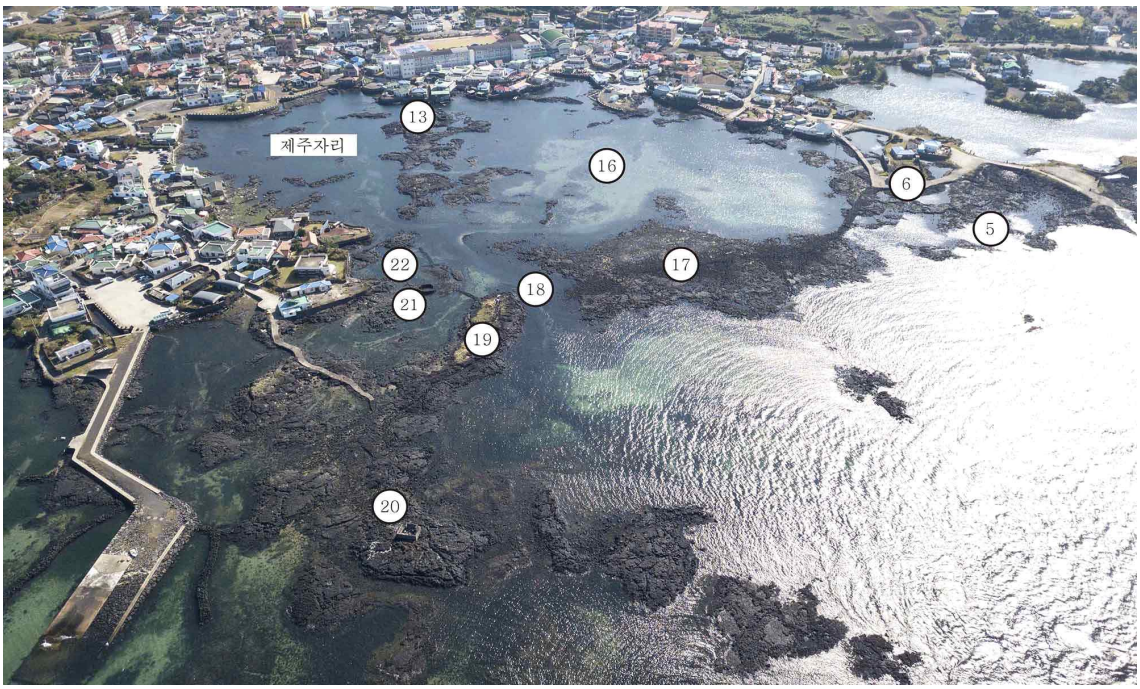
1. 고제소

‘대섬바다’와 ‘개낭개바다’ 사이에 있는 ‘고제소’는 작은 우주와 같다. 이름이 붙어 있는 용천수가 10개, 갯담 2개[15], 불턱 2개. ‘먼자도리빌레’와 ‘신남머들’에 둘러싸인 고제소는 전체가 하나의 자연적 갯담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물고기들이 밀려들어온다. 이곳은 10개의 용천수뿐 아니라 고제소 바닥에서 담수가 쏟아져 나온다. 담수와 바닷물과 만나는 기수역气水域이어서 특히 숭어가 많다. 조류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고제소는 아이들의 안전한 물 놀이터이지만, 좁은 길목으로 흐르는 ‘흐리네깍[16]’의 거센 물살 때문에 종 종 사고가 나던 곳이기도 하다. 고제소는 포구가 아님에도 포구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담수, 갯담, 불턱, 그리고 ‘제주자리’까지.

15) 갯담은 포구 주변에 물고기를 잡아가두기 위해 만든 돌담, 조천에서는 ‘개’ 또는 ‘갯담’이라 부른다. 제주에서 ‘개’라고 부르는 곳은 조천리에서 구좌읍 하도리까지이고, 나머지는 ‘원’ 또는 ‘원담’이라 부른다.

16) 신촌에는 ‘흐리내촐리’가 있고, 조천에는 ‘흐리내깍’이 있다. 신촌과 조천의 ‘흐리내’는 유사한 구조와 현상을 보인다. 두 곳 모두 바닷물이 밀물 따라 한 곳으로 몰린다. 신촌은 ‘씰물빌레로’, 조천은 ‘고제소’로. 한번 밀려든 바닷물은 가두어져 있다가 썰물 때 한 곳으로 빠져나간다. 좁은 길목으로 일시에 빠져나가는 물살은 세찰 수밖에 없다. 이렇듯 세차게 흐르는 물살을 ‘흐리네’라 하는 듯하다.

<그림 Ⅲ-3> 고제소 주변



'먼자도리빌레'와 '신남머들'에 둘러싸인 '고제소'는 조류의 영향이 거의 받지 않고 있다. (5)새개 (6)불턱,해녀탈의장 (13)제주자리물 (16)고제소 (17)먼자도리빌레 (18)흐리네깍 (19)신남머들 (20)불턱 (21)신남머들물(남) (22)원서방개. '신남머들' : '신남'은 '참식나무'를 말하고, '머들', '머흘'은 돌무더기 밭을 말한다.

<그림 Ⅲ-4> 고제소의 용천수 1



고제소 안의 용천수들 (7)절물 (8)수룩물(남) (9)수룩물(여) (10)알물 (11)엉물(남) (12)엉물(여) (13)제주자리물

<그림 Ⅲ-5> 고제소 안의 용천수 2



고제소 안에 위치한 용천수. 가늘게 흐른다 하여 (14)새물, 용천수가 풍부하여 한 번 물을 기를 때 두 말씩 떠가곤 했다는 (15)두말치물

2. 제주자리

고제소 안에는 '제주자리물'이 있다. '제주자리'에 나는 물(담수)이란 뜻이다. 그럼 '제주자리'는 무슨 말일까? '자리'가 붙은 말은 고제소 밖에도 있다. '군대환자리'. 일제시대 때 제주-오사카를 오가던 일본 여객선 군대환[17]이 닻을 내리던 자리를 말한다. 김녕리에는 '서울자리', 태흥리는 '관선자리', 온평리에는 '군선자리' 등, 특정한 배가 기항하는 자리의 이름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말의 쓰임에 비추어 '제주자리'는 제주배를 위한 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자리는 조류의 영향이 없어 안전하고, 담수로 '소'를 살충하여 배를 보호할 수 있어 포구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여'가 많고 수심이 낮아 바다지형에 밝은 제주배가 아니면 대기 어렵고, 목이 좁은 탓에 작은 배가 아니면 출입이 어렵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개낭개'를 가득 채운 관선, 군선, 상선의 위세를 뚫고 제주배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선의 영욕이 서린 연북정[18]은 '개낭개[19]'에서 가장 높이 서있지만, 조천의 생애가 어린 '제주자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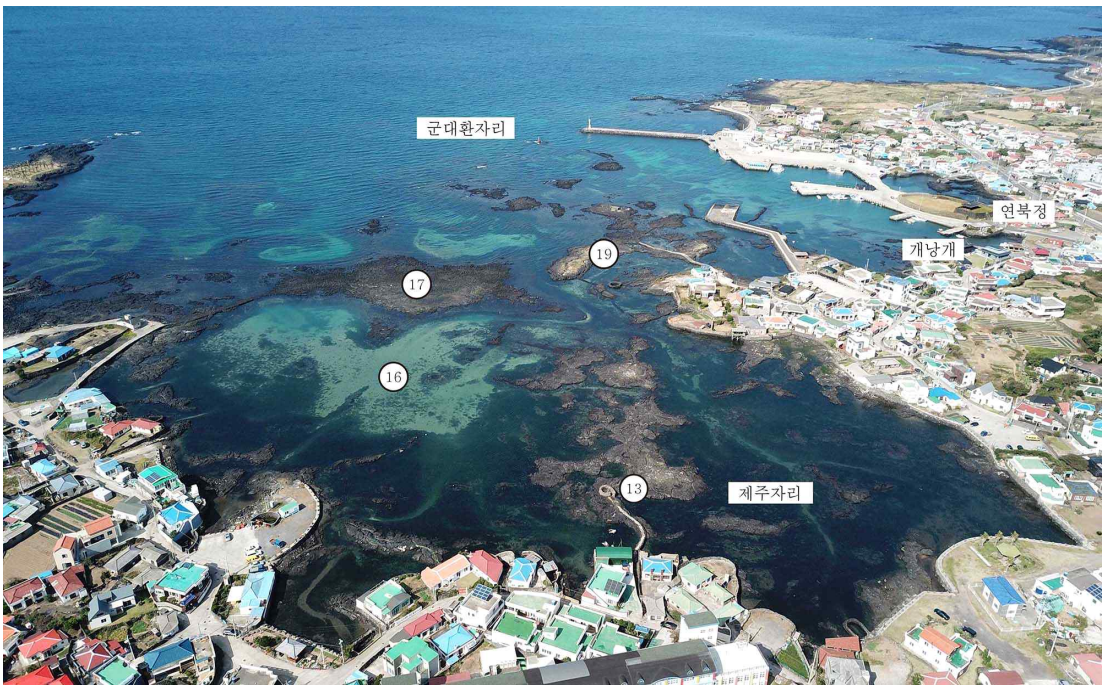
---

17) 1922년부터 1934년까지 군대환(君代丸·기미가요마루)을 타고 오사카 등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은 약 5만 명.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25%에 이른다(제주신보, 2016.11.28.).

18) 연북정戀北亭 : 제주 유형문화재 3호

19) 조천의 주요포구, 지금의 조천항이다. 제주는 포구를 '개'라 부른다. '개' 주변에 '개낭'이 많이 자라 '개낭개'라 했다. 개낭늠 누리장나무. 냄새가 심하여 '구릿대나무', '개나무'라고도 한다.

<그림 Ⅲ-6> 개낭개 주변



개낭개 옆에 조천진성이 있고, 그 위에 연북정이 서있다. '군대환'은 대형선박이기에 수심 깊은 곳에 정박한 후, 종선從船을 통해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른다. (13)제주자리물 (16)고제소 (17)먼자도리빌레 (19)신남머들

<그림 Ⅲ-7> 개낭개와 해녀들



'개낭개'에서 파래를 조물고 있는 해녀들(사진: 고광민, 1996).

3. 웨살바다와 조금바다

제주 바다에는 '웨살바다'가 있고, '조금바다'가 있다. '웨살' 때는 조류가 세고, '조금' 때는 조류가 느슨하다. 웨살 때에도 물질이 가능한 바다를 '웨살바다'라 하고, 조금 때에만 물질을 해야 하는 바다를 '조금바다'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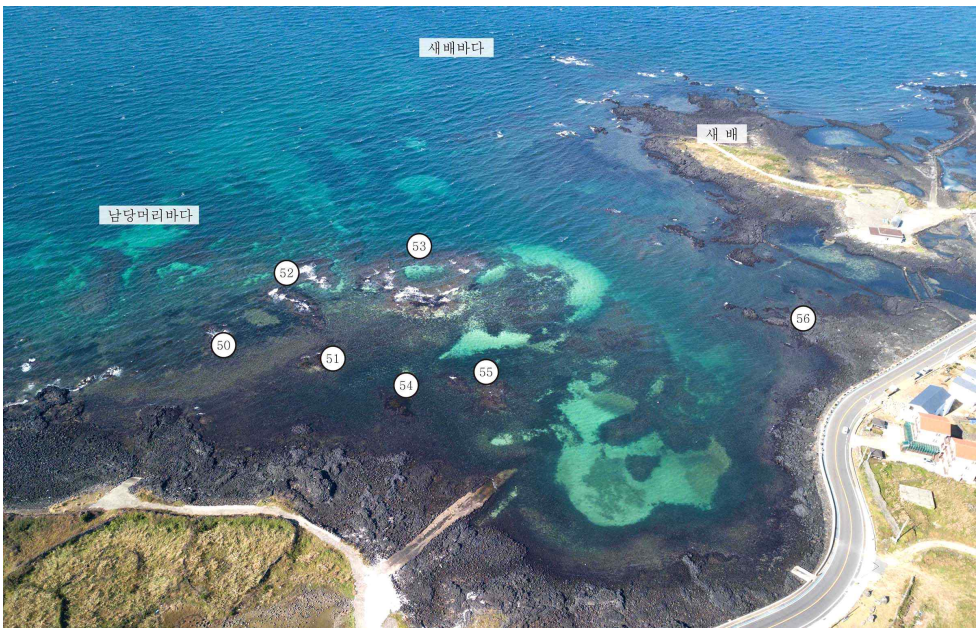
'대섬바다'와 '개낭개바다'는 '남당머리코지'와 '대섬'에 둘러싸여 있어 조류가 비교적 약하다. 그러므로 대섬바다와 개낭개바다는 웨살 때도 물질이 가능한 웨살바다이다. 반면 바다 밖으로 돌출한 코지 앞은 물살이 드세다. 그러므로 남당머리바다와 새배바다는 물살이 느슨한 조금 때에만 물질을 해야 하는 조금바다이다. 남당머리바다 북동쪽으로 만을 이루는 곳에 '안여', '중여', '미여', '듯치여', '할망여' 등이 있다. 이 곳도 조금바다에 포함된 곳이지만, '새배코지'와 '여'들이 조류를 막고 있어 웨살에도 물질이 가능한 웨살바다라 할 수 있다.

<그림 Ⅲ-8> 남당머리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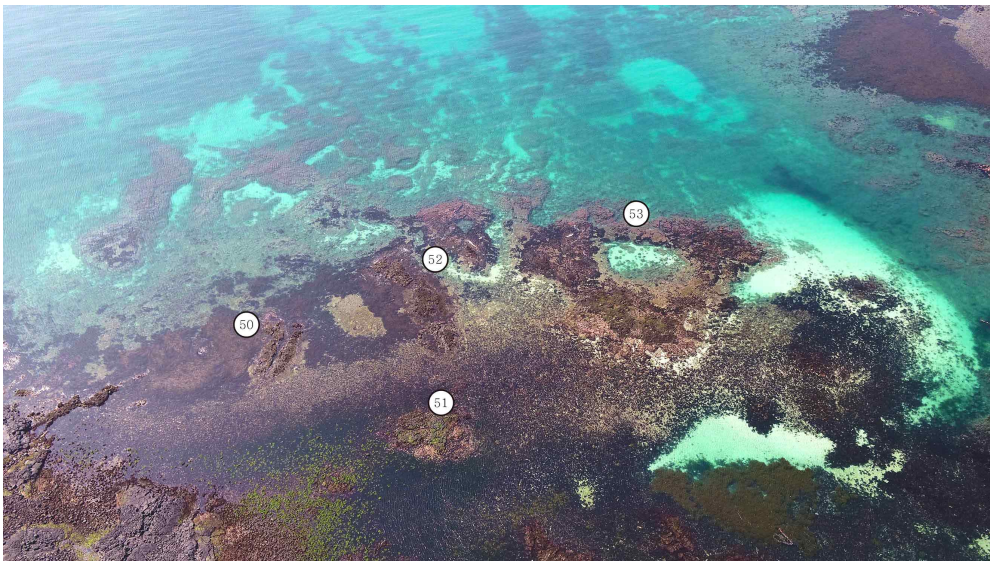
새배 앞은 중동바다이고, 남당머리 앞은 하동바다이다. 보통 '새배바다'와 '남당머리바다'라고 부른다. 남당머리 아래쪽에는 하동 해녀의 탈의장과 불턱이 있다. 그 앞에 있는 (45)'짐여'는 '김'이 많이 나는 여이다. '짐'은 '김'의 제주말이다

<그림 Ⅲ-9> 남당머리코지와 새배코지



남당머리코지와 새배코지 사이가 움푹 들어있어서 물살이 약하다. (55)'할망여'는 '여'들 중 가장 안쪽에 있다. 나이든 해녀를 위한 바다밭을 '할망여'라 부른다. 이 일대에는 수심이 낮아 우미가 많다. (56)생이봉우지는 하동바다과 중동바다의의 경계점이다. (50)벌러진여 (51)미여 (52)중여 (53)안여 (54)두치여 (56)생이봉우지

<그림 Ⅲ-10> 안여 주변



(50)'벌러진여', 여가 벌어져 있어서 '벌러진여'라 부른다. 제주 해안에는 '벌러진여'라 부르는 바다밭이 많다. (53)안여 오른쪽을 가로지르는 모래밭은 (56)생이봉우지에서 시작되는 하동과 중동의 바다 속 경계선이다.

수심이 낮고 비교적 잔잔한 대섬바다에는 ‘우미’가 많이 난다. 조천 전체 생산량의 2/3가 이 곳에서 나온다. 반면 수심이 깊고 거친 남당머리바다와 새배바다에는 구쟁기, 전복, 해삼, 성개가 많다. 주로 ‘헛물에[20]’가 이루어진다. ‘톳’과 ‘우미’는 마을 별로 자기 바다에서 공동채취, 공동 분배한다. 하지만 ‘헛물에’는 마을의 구별 없이 모든 바다에서 자유롭게 행해진다. 거친 바다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동 해녀들은 공동채취, 공동분배 하던 ‘톳’과 ‘우미’를 개별 채취로 변경하였다. 조합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해산물의 채취와 분배의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바다밧의 상황과 조합원의 사정에 따라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이다.

<그림 Ⅲ-11> 대섬바다



상동바다를 ‘대섬바다’라 부른다. ‘대섬’이 있어서 그렇다. 지금은 대나무를 베어내고 야자수를 심고 있다. 대섬이 야자수섬으로 바뀌고 있다. ‘우미소’ 주변에 갯담을 쌓아 만들었기에 (1)‘우미솟개’이다. (4)‘멩감터’는 상동 해녀들의 영등굿 제장이었다. 지금은 조천 상,중상,하,중동 4개 마을 해녀들이 통합하여 영등굿이 치르고 있다. 영등굿은 매 년 ‘하동’에 자리한 ‘조천어촌계’에서 진행한다. (25)존빌레 (26)섯괴깃여 (30)가릿여

20) 구쟁기, 전복, 해삼, 성개 등을 따는 것을 헛물에라 한다. 미역 채취는 미역물에, 감태 채취는 감태물에라 한다.

4. 조류가 붙인 이름

조류와 관계 깊은 바다밧 이름은 '섬여' 주위에서 확인된다. 섬여는 수심 12m 바다 한가운데 있는 '여'다. '여'의 모양이 편편치 않고 뾰족하다. 오똑한 '여' 주변의 수심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지겁'이라 한다. 기량이 뛰어난 해녀들만이 '지겁'까지 가서 물건을 건져 올린다. 오똑한 섬여 봉우리는 5물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썰물은 동으로, 밀물은 서로' 흐르는 것이 제주 조류潮流의 공식이다. 흐르는 물은 그 방향이 어디건 섬여에 이르러 세차게 부딪는다. 때문에 섬여 주위에 모래라곤 있을 수 없다. 섬여 양쪽에 몰아치는 세찬 물줄기가 모래를 쓸어버려 커다란 돌덩어리들만 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돌덩어리를 두고 제주 사람들은 '머흘'이라 한다. 섬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귓벳머흘여', '섬여통머흘', '쏠물건지머흘', '귀벳머흘', '한장틔운머흘'은 '섬여'와 파도가 수 천년 동안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자연의 향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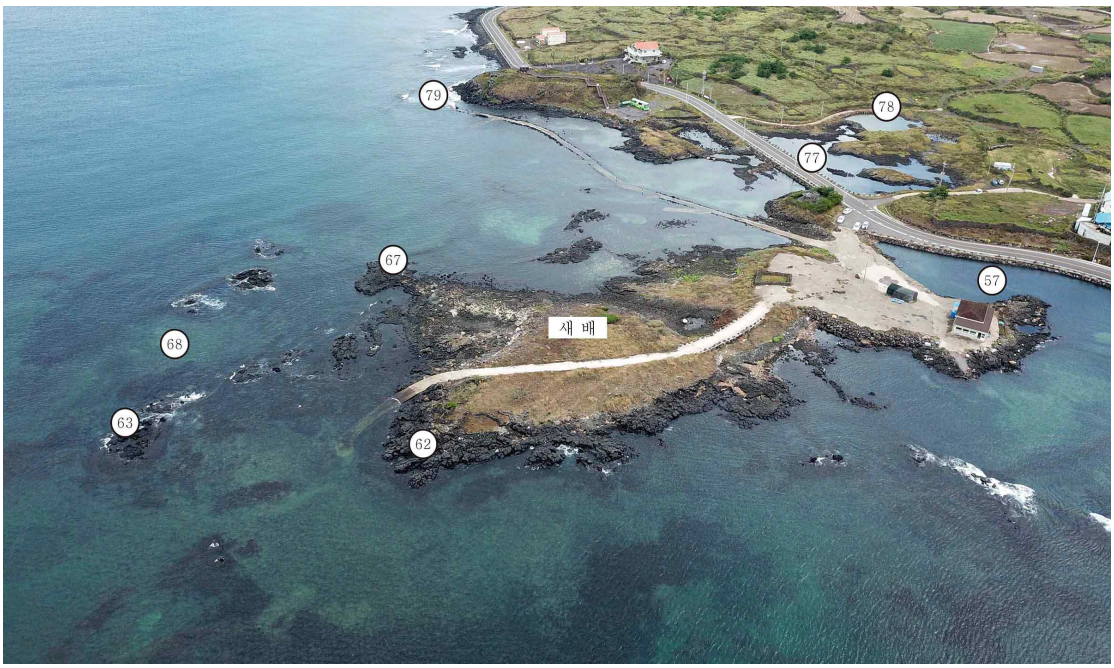
'섬여' 동북쪽에는 '쏠물건지머흘', 서남쪽에는 '들물건지여'가 있다. 조류는 12시간 반을 주기로 반복된다. 조류의 한 주기는 사람의 일생에 비유되기도 한다. 초반 유년기에는 조류의 힘이 없다가 한창인 청장년기에는 드센 힘을 발한다. 그러다가 다시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간다. 해녀들은 '섬여'보다 먼 바다에 있는 '동도렝이'나 '섯도렝이'에서 일하다가 힘차고 젊은 조류를 만나게 된다. 그럴 때는 재빨리 힘을 내어 일터를 '쏠물건지머흘'로 옮겨야 한다. 동쪽으로 흐르는 조류가 '섬여'에 와 박치면서 '쏠물건지머흘' 일대는 조류의 영향을 조금은 덜 받는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바다밧에서 일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고순생 할머니 말은 바다 사정에 무지한 나를 일깨운다.

"좀수덜이 동도렝이서 숨비당 원체 쎈 쏠물을 만나민 재기 자리를 옮겨사, 쏠물건지머흘더레. 섬여 의지로 그렌 물이 죽어지주게."

"해녀들이 '동도랭이'에서 물질하다가 원체 쎈 썰물을 만나면, 빨리 자리를 옮겨야 한다. '쏠물건지머흘'쪽으로. '섬여'에 막혀 그쪽은 물살이 죽기 때문이다."

다시 밀물일 때, 조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들물건지여'는 바로 그때 의지처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바다밧 이름이다. 조류와 관련된 두 개의 바다밧 이름 속에는 바다밧을 일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그림 Ⅲ-12> 새배코지 주변



중동 해녀의 물질은 썰물 때는 (63)'섬여'에서 시작하여 (79)'엉장메코지'로 나오고, 밀물 때는 그 반대순서이다. 썰물은 동으로, 밀물은 서로 흐르기 때문이다. (63)섬여 주변이 모두 돌밭이다. (68)섬여통머흘:섬여 옆 둥근 '머흘통'이 보인다. (57)먹돌안개, (62)새배코지, (67)오다리코지, (77)시칩잇개, (78)이들물. '이들물'은 '엉장메코지' 인근에 오래 전부터 이氏가 살고 있었다고 하여 이 일대를 '이돌'李石이라 불렀다. 민간에서는 소리가 변하여 '이들', '이들개'로 전하고 있다. '이들개'에 흐르는 물을 '이들물'이라 한다. '엉장메코지'에는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에 대한 '설문대할망'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림 Ⅲ-13> 먹돌안개



5. 시칩읫개

‘개’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공동 자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칩읫개’ 소유는 이와 달랐다. ‘시칩읫개’는 조천 김씨 문중의 ‘시’자 항렬 집안 소유의 갯담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음은 현기영의 소설, 『바람 타는 섬』에 나오는 대목이다. 제주 근현대사에서 조천 김씨 문중이 차지했던 바를 보여준다.

> 전 도민이 가담한 봉기인데도, 위군충정의 대의명분을 내세워, 민군에 대항하는 반동세력으로 등장하든지, 사세가 불리할 듯싶으면 철저히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의 난은 애당초 대정고을과 정의고을 두 유림 중심이 되어 일어나 최대의 사건이었건만, 조천 김씨 문중은 시종 방관자로서 일관했다. 이러한 봉건적 대의명분이 그래도 한 번은 옳게 기염을 토한 적이 있으니, 그것이 기미년 3월의 만세 운동이다.

제주로 유배 온 중앙의 정객이 첫발을 내딛는 곳이 조천이다. 조천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신문화교류의 최전선이었고, 그 교류를 주도한 이는 물적 기반을 갖춘 조천의 유림들이었다. 구한말 조천 유림의 정신세계는 제주에 유배 온 위정척사 최익현과 동도서기 김윤식이라는 대립각 속에서 더욱 첨예해졌고, 이러한 사상적 훈련은 조천 3.1 만세 운동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 이후 조천의 유림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기되었고, 조선,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천 유림의 중요한 축이었던 조천 김씨 일가 중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사가 8명이며, 그들 중 ‘시’자 항렬의 인사는 7명이다.

<그림 Ⅲ-14> 시칩읫개



‘시집의개’를 ‘시칩읫개’라 발음한다. (77)시칩읫개 (78)이들물

6. 구쟁기닥살

조천 연북정 옆에는 일제시대 때 '간스메 공장'(통조림 공장)이던 건물이 남아있다. 오래된 건물이라 허름하지만, 내부의 벽과 바닥에는 간스메 공장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러일전쟁으로 러시아 함대에 가로막힌 일본 상선들은 태평양, 인도양 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화약의 재료인 질산칼륨의 수입이 막히게 되어 일본 국방성은 비상이 걸렸다. 일본 국방성이 주목한 것은 제주의 '감태[21]'였다. 감태의 주성분인 요오드칼륨으로 질산칼륨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제주의 감태 확보에 나선 일본 국방성은 '구쟁기(소라)[22]'도 함께 매입하게 된다. 군정책에 의해 '구쟁기 간스메'(소라 통조림)가 군 보급품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제주 곳곳에 감태 공장과 간스메 공장이 생겨나게 되고, 감태와 구쟁기는 제주 해녀의 주요 소득원이 되었다. '감태물에', '구쟁기물에'라는 말도 이 때 처음 등장하였다. 조천에 간스메 공장 주변에는 구쟁기를 팔기 위한 해녀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간스메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구쟁기 간스메였지만, 보조사업으로 단추 생산도 병행하였다. 구쟁기 살은 통조림에 쓰고, 단추는 구쟁기 껍질를 가공하여 만들었다. 구쟁기 껍질에 동그란 구멍을 내면 단추를 얻을 수 있다. 숙련공들은 구쟁기 껍질 하나에 단추 5개를 만들어 냈다.

간스메 공장에서 생산된 단추는 완제품이 아니었다. 이 단추들은 조천에 정박해 있던 군대환에 실려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일본은 이를 가공한 단추의 완제품을 영국으로 수술하였다. 영국은 이 단추를 옷에 채워 상품으로 만들고 다시 식민지 각 국으로 수출하였다.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구축된 국제분업 시스템 하부에 조천의 간스메 공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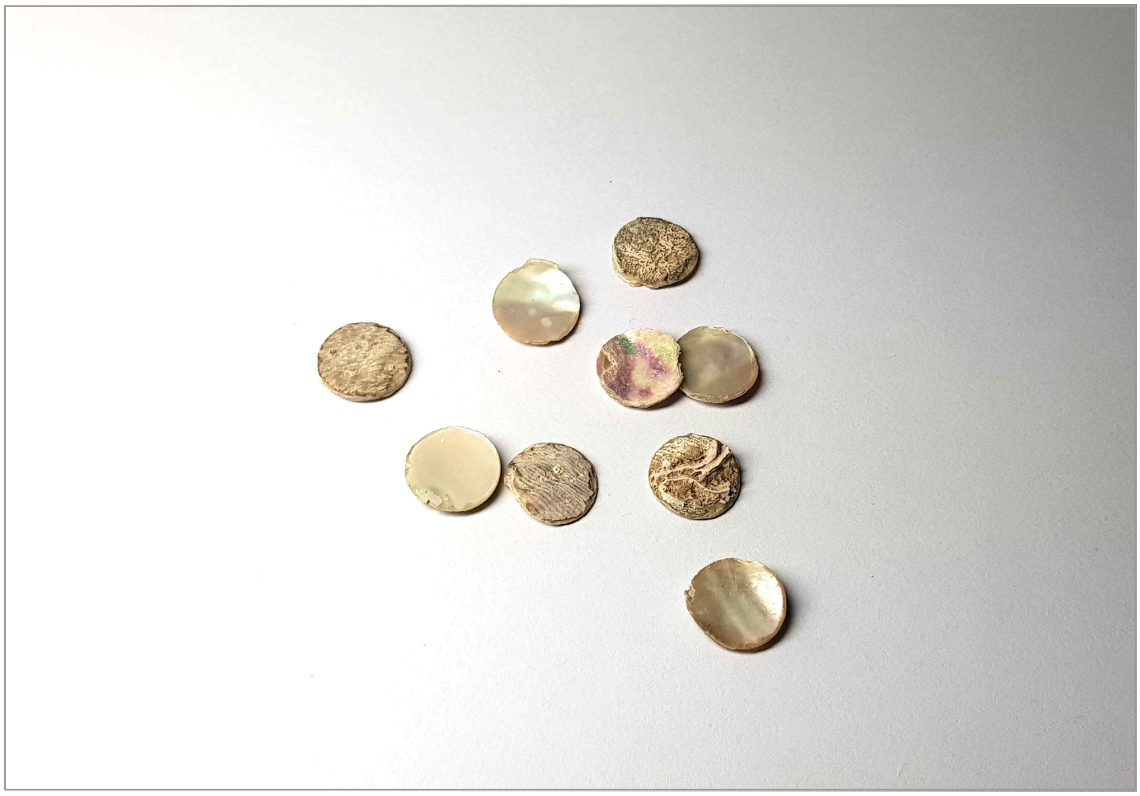
해녀들은 구쟁기를 크기에 따라 '조쿠쟁이', '쏠쿠쟁이', '민둥치'라 부른다. 속은 '요물'이요, 겉은 '딱물'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 준 고순민 할머니(1931년생)는 '구쟁기딱물'을 '구쟁기딱살'이라 불렀다.

---

21) 감태는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의 일종. 요오드 원료로도 쓰인다.

22) 구쟁기를 요즘은 '소라'라고 부른다. 하지만 구쟁기와 소라는 전혀 다른 생물이다. 소라는 육식성 생물이고, 구쟁기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는 초식성 생물이다.

<그림 Ⅲ-15> 구쟁기닥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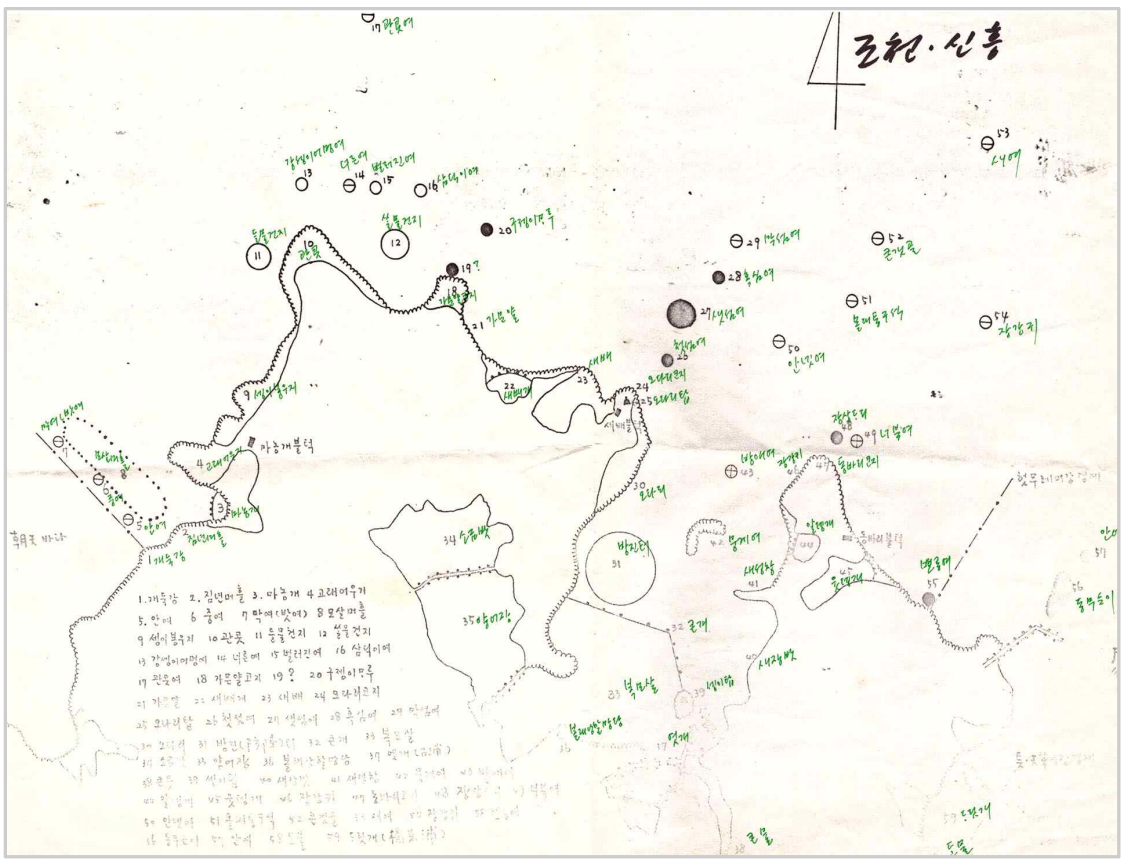


1940년대 조천 간스메 공장에서 생산된 구쟁기닥살

Ⅳ. 신흥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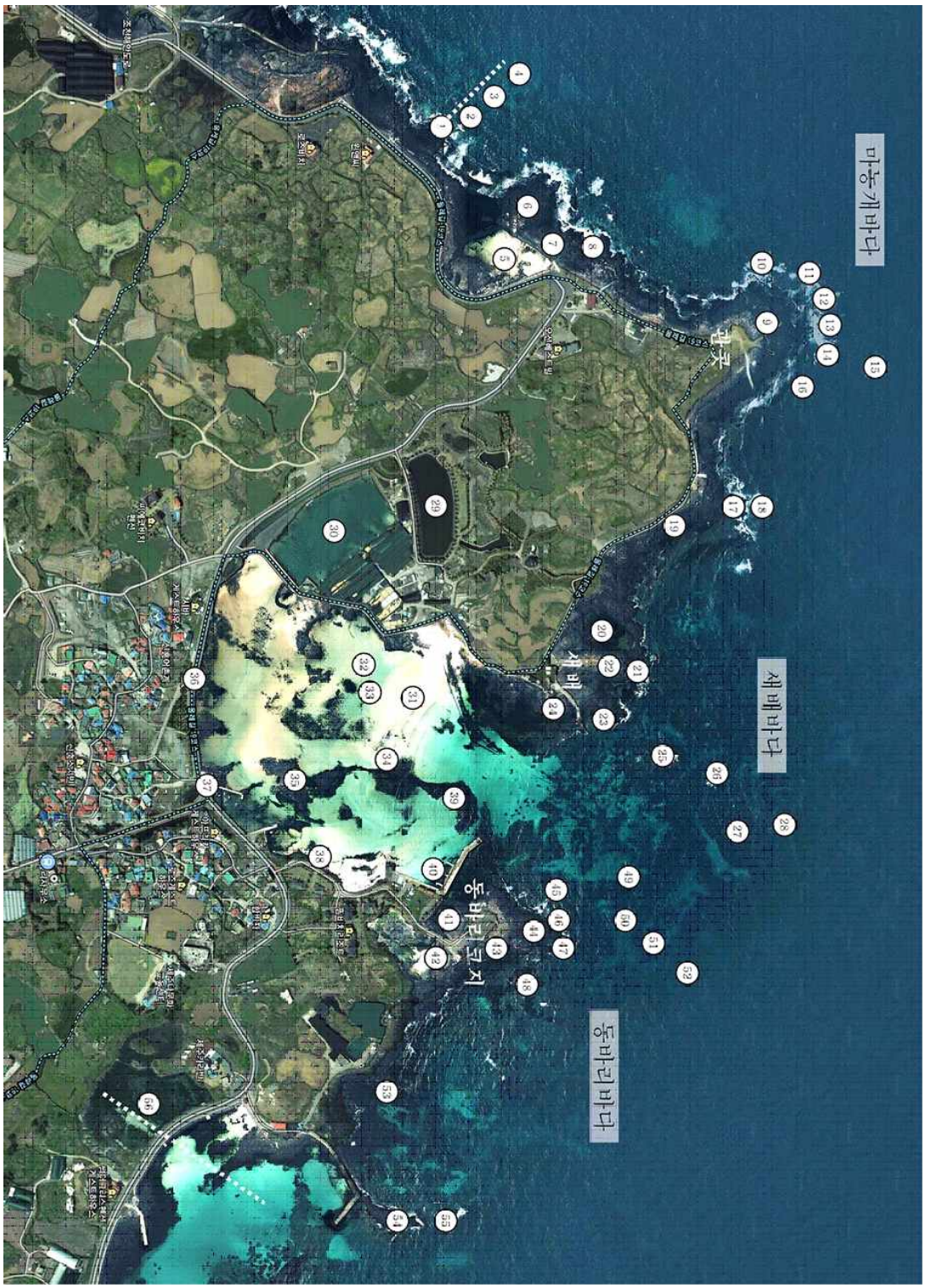
신흥은 조천과 함덕 사이에 있던 마을로 고서古書에는 왜포倭浦라 기록되어 있다. 관콧에는 왜포의 이름을 딴 왜포연대倭浦烟臺가 있다. 민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왯개', '엿개', '잇개'라 부르던 마을이다. 1914년 조천과 함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신흥리新興理라 이름 짓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새성창'이 있지만 ,과거 신흥은 '엉알개' 하나의 포구만을 거느리고 있었다. '엉알개' 주변으로 '엉알동네' 동동, '돈지동네' 중동이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구녕물동네' 섯동이 있다. 신흥은 크지 않은 마을이어서 바다 구분 없이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신흥 바다를 '마농개 바다', '새배 바다', '동바리 바다' 셋으로 나눈 것은 조류와 바람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어로활동을 위한 것이다.

<그림 Ⅳ-1>고광민의 신흥 바다밭 조사[23]



23) 고광민(1990-2000b) 참조

<그림 Ⅳ-2> 신흥 바다밧 이름[24]



24) '다음'지도 켑쳐 후 바다밧 이름 기입

(1)넙짝빌레
(2)안여
(3)중여
(4)막여(밧여)
(5)마농개
(6)고래어우지
(7)마농개불턱
(8)생이봉우지
(9)관콧
(10)들물건지
(11)강생이어멍여
(12)너른여
(13)벌러진여
(14)삼딕이여
(15)관콧여
(16)쏠물건지
(17)가문알코지
(18)구쟁기모루
(19)가문알
(20)새배개
(21)새배
(22)새배불턱
(23)오다리코지
(24)오다리탑
(25)첫섬여
(26)샛섬여
(27)혹섬여
(28)막섬여
(29)소금밧
(30)양어장
(31)방진터
(32)큰개
(33)방사탑
(34)방사탑
(35)생이탑
(36)볼래낭할망당
(37)엿개
(38)사장밧
(39)뭉개여
(40)새성창
(41)알뒌개
(42)웃뒌개
(43)동바리불턱
(44)동바리코지
(45)방애여
(46)장강키
(47)장상도리
(48)너북여
(49)안넷여
(50)몰래통구석
(51)큰갯골
(52)새여
(53)뽀롱여
(54)동무순이
(55)안여
(56)도릿개

1. 관콧

관콧 앞에 ‘강셍이어멍여’, ‘너른여’, ‘벌러진여’, ‘심딕이여’ 등이 있다. 신흥마을에서 한평생 바다밧을 일구며 살아온 김봉만 노인이 관콧의 어원을 들려준다. “어째서 관콧이냐 하면, 옛날에 조천을 조천관이라 해낫거든. 그러니까 조천관의 콧이라고 해서 관콧.” 제주도 해안에서 불쑥 튀어나온 곳을 ‘콧’ 또는 ‘코지’라 한다. 그 반대로 안으로 움쑥 들어간 곳을 ‘개’라 한다. 조천 ‘개낭개’에서 신흥 ‘관콧’까지 직선거리 2.5km. ‘마농개바다’는 관콧의 앞바다이기에 물살이 드셀 수밖에 없다. 신흥마을 바다밧들 중에서 조류와 관계된 바다밧 이름은 마농개바다에서만 확인된다. 밀물 때 의지하는 ‘들물건지’와 썰물 때 의지하는 ‘쏠물건지’.

<그림 Ⅳ-3> 관콧 주변



(9)관콧 (10)들물건지 (16)쏠물건지, 들물건지와 쏠물건지 사이에 여러 ‘여’들이 보인다.

2. 지물지보름과 맞절

‘물때’에 따라 신흥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다는 각기 다르다. 13물[25]에서 2물까지 5일 동안은 ‘마농개 바다’에서, 2물에서 3물, 2일 동안은 ‘동바리 바다’에서, 4물에서 6물, 3일 동안은 ‘새배 바다’에서 한다. 해안지형에 따라 조류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녀의 물질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해녀의 물질 시간표는 물때와 바람, 조류와 풍향, 그리고 해안지형, 이렇게 5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짜야하는 고차 방정식이다. 어느 바다에서건 북풍이 몰아칠 때는 물질이 곤란하다. 썰물이냐, 밀물이냐, 서풍이냐, 동풍이냐를 판단해 자신이 들어갈 바다를 결정한다.

동東에서 서西로 흐르는 밀물이 동에서 서로 불어오는 동풍東風과 만나면, 조류에 바람이 더해져 물살은 더욱 빨라지고 ‘테왁[26]’은 한없이 떠밀려 간다. 이럴 때를 ‘지물지보름’이라 한다. 바다밧은 악조건에 놓인다. 썰물과 서풍이 만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밀물일 때 서풍을 만나면 조류방향과 바람방향이 서로 마주친다. 이 상황을 ‘맞절인다’라고 한다. ‘맞절’이 일면 물살이 잔잔해지고 테왁은 정지하게 된다. 바다밧은 호조건에 놓인다. 썰물과 동풍이 만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물살이 느슨한 때라 해도 ‘지물지보름’에는 먼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반면 ‘맞절’이 이는 날엔 물살이 드센 먼 바다도 시도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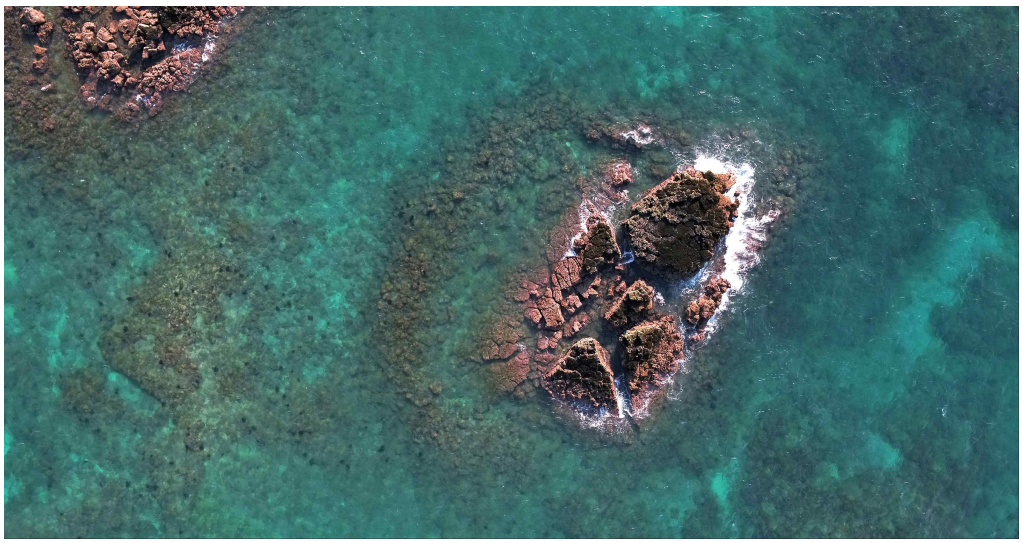
25) 조수의 순환은 15일을 기준으로 반복된다. 조수는 1물에서 15물까지 나뉜다.
26) 테왁은 제주 해녀들이 물질할 때 몸을 의지하는 부력浮力도구.

<그림 Ⅳ-4>섬여 주변



(25)첫섬여 (26)샛섬여 (27)혹섬여 (28)막섬여

<그림 Ⅳ-5> 혹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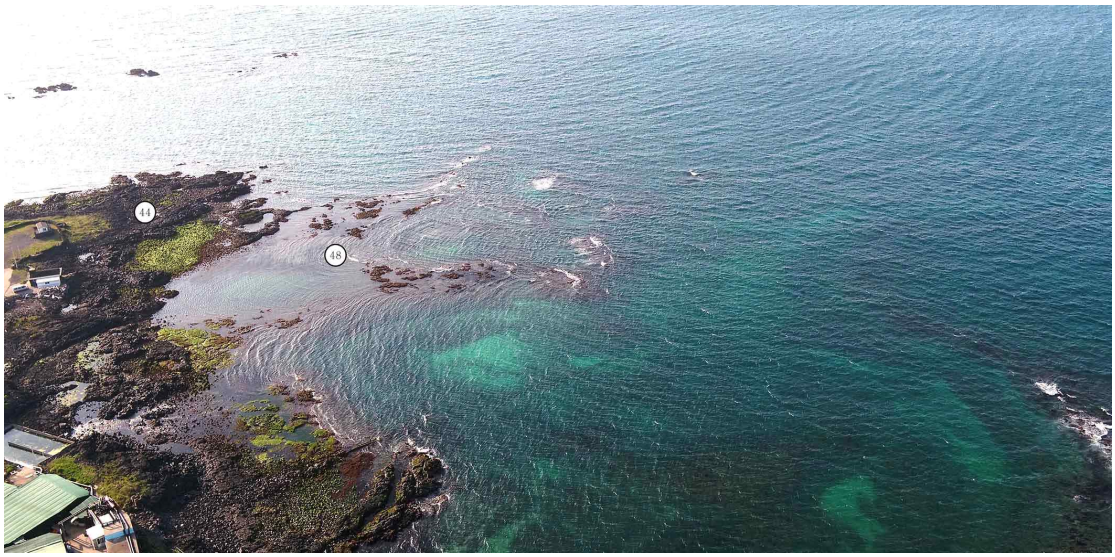


조류의 영향으로 (27)혹섬여 주변이 '머흘팟'(돌무더기밭)을 이루었다. (25)첫섬여, (26)샛섬여, (28)막섬여 주변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바다밧 이름 중에는 동일한 이름, '섬여'가 많다. 조류가 강한 곳에 '섬여'들이 있다. 썰물에 물 빠지는 것을 제주어로 '물이 싸다'라고 말한다. 조류의 힘은 밀물보다 썰물이 더 강하다. 섬여의 섬이 섬島이 아니라 '썰물', '물쌀', '싸다'의 'ㅆ'에서 온 것은 아닐까?

3. 돌런지

동바리바다에서는 이상한 조류현상이 확인된다. 썰물인데 마치 밀물처럼 역류하는 현상이다. '동바리코지'를 세차게 때린 썰물은 동쪽, 서우봉까지 흘러간다. 서우봉에 부딪쳐 반사된 썰물은 역류하여 동바리바다까지 되돌아온다. 이처럼 조류가 거대한 해안지형에 반사되어 일어나는 역조류 현상을 '돌런지'라 한다. 동바리바다에서 '헛물에' 작업을 하는 날은 2물과 3물이다. 하지만 이보다 물살이 드센 '웨살', 4물에서 7물까지도 작업이 가능한 날이 있다. '돌런지'가 이는 때와 '맞절'이 이는 때가 그런 날이다. 8물에서 12물까지를 '진웨살'이라 한다. 이때는 '헛물에'를 삼간다.

<그림 Ⅳ-6> 동바르코지 주변



2018.5.16. 오후 5:40, 동바리코지 앞 '너북여'를 찍은 사진이다. 5.16일 물때는 9물, '웨살'이고, 썰물 최간조 시간은 오후 5:16이다. 동바르코지 앞, 썰물 때 이는 '돌런지' 현상으로 보인다. 썰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반사된 물결과 교차되는 역조류 현상이 확인된다. 아래 사진은 밀물 때의 사진이다.



4. 도둑개

제주에서는 포구를 '개'라고 부른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가두는 돌담을 '원'이라 한다. 하지만 조천리에서 구좌읍 하도리까지 해안마을에서는 포구건 물고기를 잡아 가두는 돌담이건 모두 뭉뚱그려 '개'라 부른다. 신흥의 '개', 물고기를 잡아 가두는 돌담은 모두 여섯 군데이다. 주위에 마농(달래)이 많이 자란다 하여 '마농개', 새배바다에 있어서 '새뱃개', 마을에서 가장 커서 '큰개', 동바리코지에 붙은 '웃뒌개'와 '알뒌개', 그리고 이웃 마을 함덕과 반을 나눠 쓰는 '도릿개'. 도릿개는 바닷물이 넘나드는 좁다란 목을 제외하면 주변의 용암 줄기가 양팔을 모아 물을 가두고 있는 것 같다. 그 목에 돌담을 놓아 손쉽게 '개'를 만들었다. 목을 막은 돌담이 함덕을 오가는 다리구실을 하여 도릿개라 한다. '도리'는 '다리'의 제주말이다.

총 길이 240m나 되는 큰개에는 주로 멸치가 몰려든다. 마을 코앞에 붙어 있기에 큰개에 '멜'(멸치)이 들면 와싹 와싹하는 소리가 들린다. 마을사람 모두가 몰려 나와 '멜'을 거렸다.

<그림 Ⅳ-7> 도릿개



1914년 신흥리는 조천과 함덕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조천과의 경계선은 '넙짝개'이고, 함덕과의 경계는 (56)'도릿개'이다. 그 당시 경계 분할 합의서에 "마농개에 영장이 올라오면 신흥이 처분하고, 도릿개에 영장이 올라오면 신흥이 처분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었다고 한다. 마을 해변에 올라오는 영장의 처리는 각 마을의 소임이었다. 영장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함덕과의 경계인 도릿개는 신흥, 함덕 간 입업분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림 Ⅳ-8>큰개 주변





아래 사진은 과거의 큰개 주변 풍경이다.(사진: 고광민, 1996). 파래가 낀 돌담이 큰개다. 5년 전 신흥에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큰개를 '철거'하였다. 마을에서는 다시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오래 전 소실되었던 (33),(34),(35)방사탑은 다시 만들어졌다.

마을 사람이면 누구든 '개'에 든 물고기를 잡아갈 수 있다.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많이 잡아간다. 어느 해인가 '멜싹'(멸치 떼)이 마농개에 가득 몰려들었다. 이른 새벽 마농개를 기웃거렸던 사람은 한 사람뿐. 혼자서 그 많은 멜싹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개'의 보수공사는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하는데, 염치없는 사람들이 꼭두새벽 '멜'을 독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흥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농개를 '도둑개'라 부른다.

"봄 3월에 동민들이 10명, 20명 씩 계를 조직하여 해변 4군데에 개를 쌓았다. 그런데 풍속과 인심이 다달이 변질되었다. 개 안에서 고기를 본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고기를 잡았다."

신흥리지 임자년壬子年(1912년)의 기록이다.

<그림 Ⅳ-9> 마농개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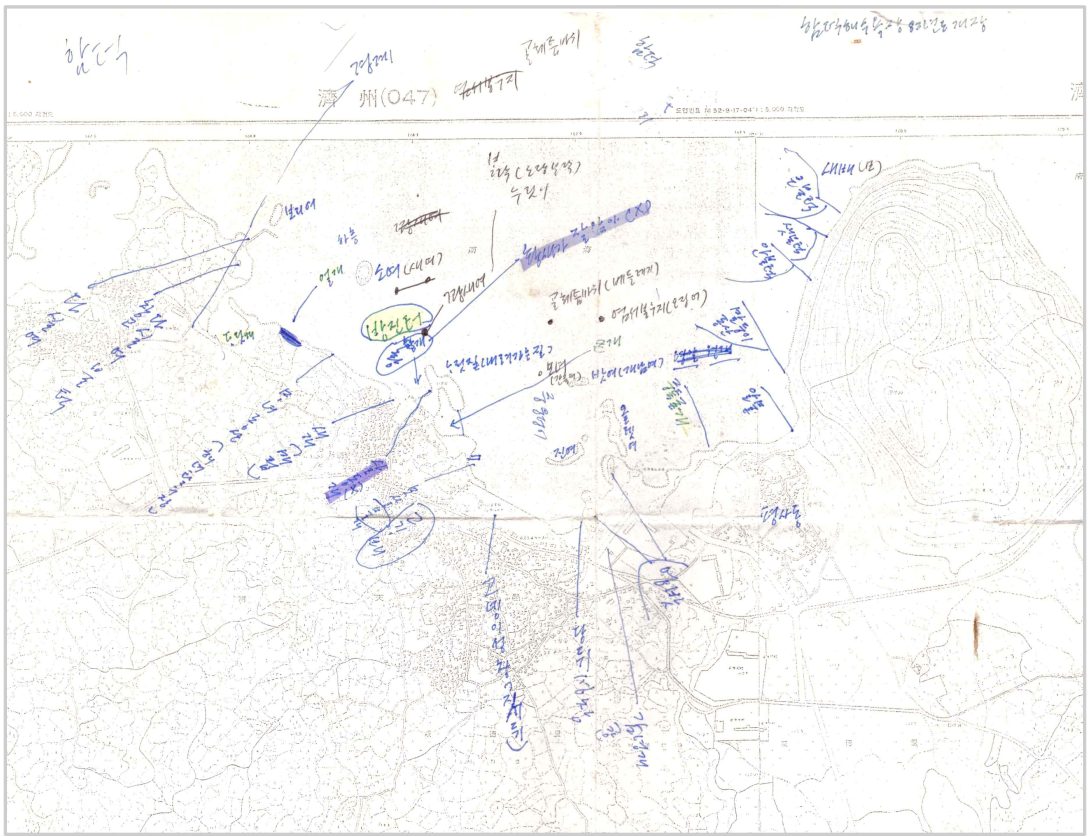
마농개 주변 풍경이다. 멀리 하얀 관콧 등대가 보인다(사진: 고광민,1996).

Ⅴ. 함덕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함덕은 현재, 리 단위마을로는 전국 최대의 마을이다. 고려시대 때 함덕현咸德縣이 설치된 곳으로 마을의 유래 또한 깊다. 오래 전부터 농업, 어업은 마을 소득의 주요 원천이었다. 함덕의 '희룡이성창', '앞개', '모살물개', '고냉이성창', '강영개', '당뒤성창' 6개의 포구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매립되었고, 함덕 정주항인 '앞개성창'과 '희룡이성창' 2 곳을 사용하고 있다. 5구를 제외한 1,2,3,4구 마을이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1986년 통합되기 전까지 바다를 넷으로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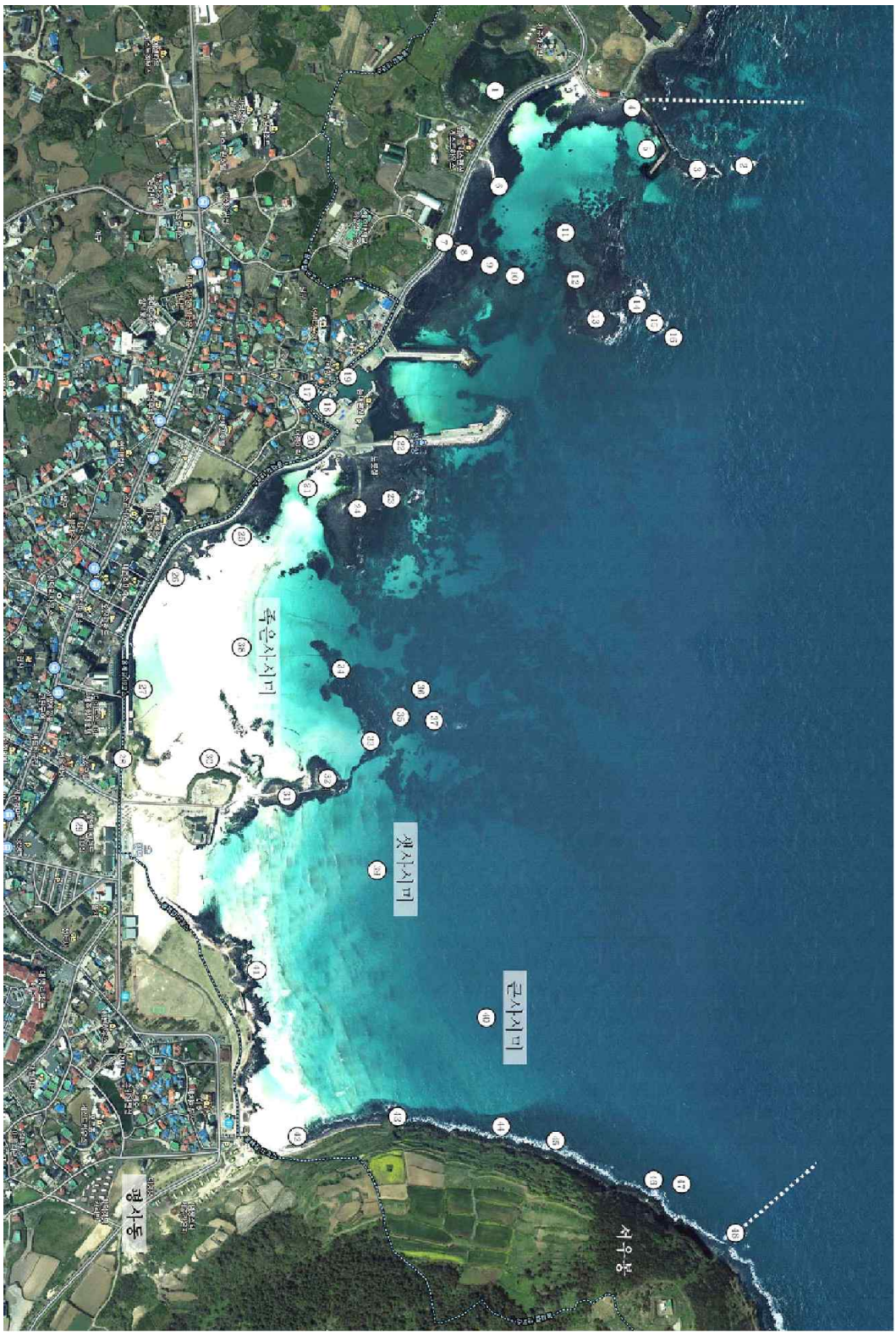
1구 바다는 '희룡이성창'에서 '앞개성창'까지
2구 바다는 '앞개성창'에서 '고냉이성창'까지
3구 바다는 '고냉이성창'에서 '올랫여'까지
4구 바다는 '올랫여'에서 '무승개'까지

<그림 Ⅴ-1>고광민의 함덕 바다밭 조사[27)]



27) 고광민(1990-2000b) 참조

<그림 Ⅴ-2> 함덕 바다밭 이름[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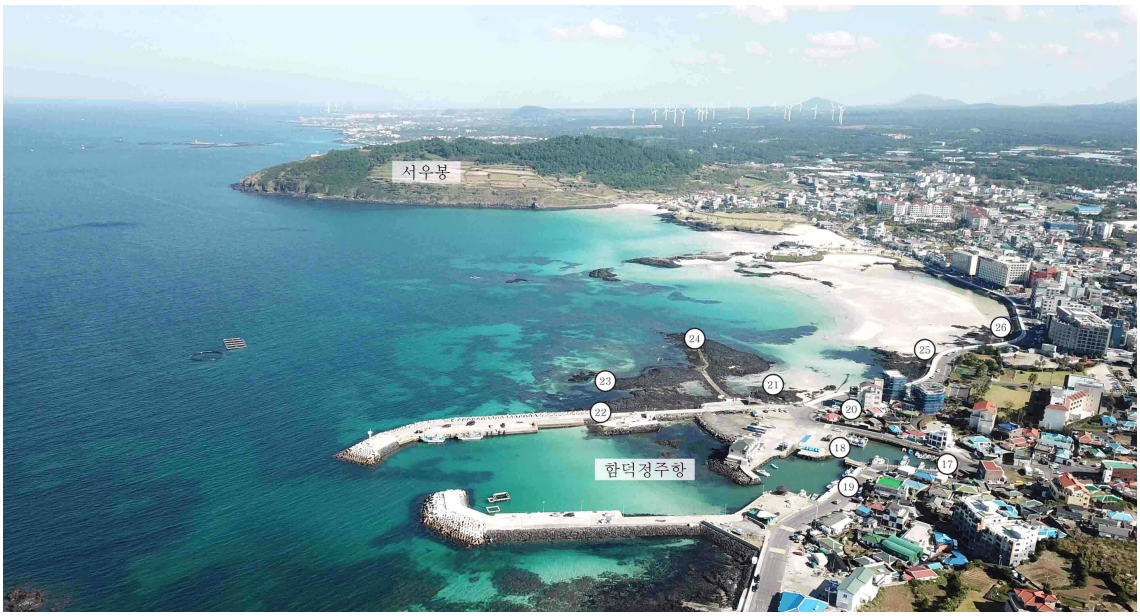
28) '다음''지도 켑쳐 후 바다밭 이름 기입

(1)도릿개
(2)난다실여
(3)다실여
(4)보리여
(5)희룡이성창
(6)얼개
(7)모녀동산
(8)거싯물
(9)메역여
(10)무여
(11)이겟여
(12)셋여
(13)소여
(14)섶여
(15)등성여
(16)등물탑
(17)앞갯물
(18)앞개성창
(19)새개
(20)영주동산
(21)큰개(한개)
(22)황개코지
(23)지방톡
(24)노릿질
(25)모살물개
(26)고냉이성창
(27)영밧
(28)당뒤성창
(29)강영개
(30)영알
(31)멜굿여
(32)불턱여
(33)올랫여
(34)노릿질곶
(35)개남여(밧여)
(36)골체기틈바위
(37)염서봉우지
(38)한모살
(39)샛사시미
(40)큰사시미
(41)중툭굴개
(42)알물
(43)말둥이동산
(44)생이봉우지
(45)지방툭굴
(46)지방툭여
(47)새배개
(48)무승개

1. 모살동네

함덕리 1구는 과거 '모살동네'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 곳에는 '앞개', '모살물개', '고냉이성창' 3개의 포구가 있었다. 앞개는 서북으로 길게 뻗은 '황개코지'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동네 바로 앞에 있다 하여 '앞개'라고 부른다. 앞개는 썰물 때 안쪽 칸살 바닥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보조포구인 '큰개'를 거느리고 있다. '갯도'는 포구로 들어가는 길목의 모래밭 일대를 부르는 말이다. 현재 '모살물개'와 '고냉이성창'은 매립되었으며, '앞개'는 확장되어 함덕정주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Ⅴ-3> 모살동네



(17)앞갯물 (18)앞개성창 (19)새개 (20)영주동산 (21)큰개(한개) (22)황개코지 (23)지방톡 (24)노릿질 (25)모살물개 (26)고냉이성창

<그림 Ⅴ-4> 큰 개



(21)큰개를 찍은 사진, 사진 뒤로 멜굿여, 불턱여, 올렛여가 보인다(사진:고광민, 연도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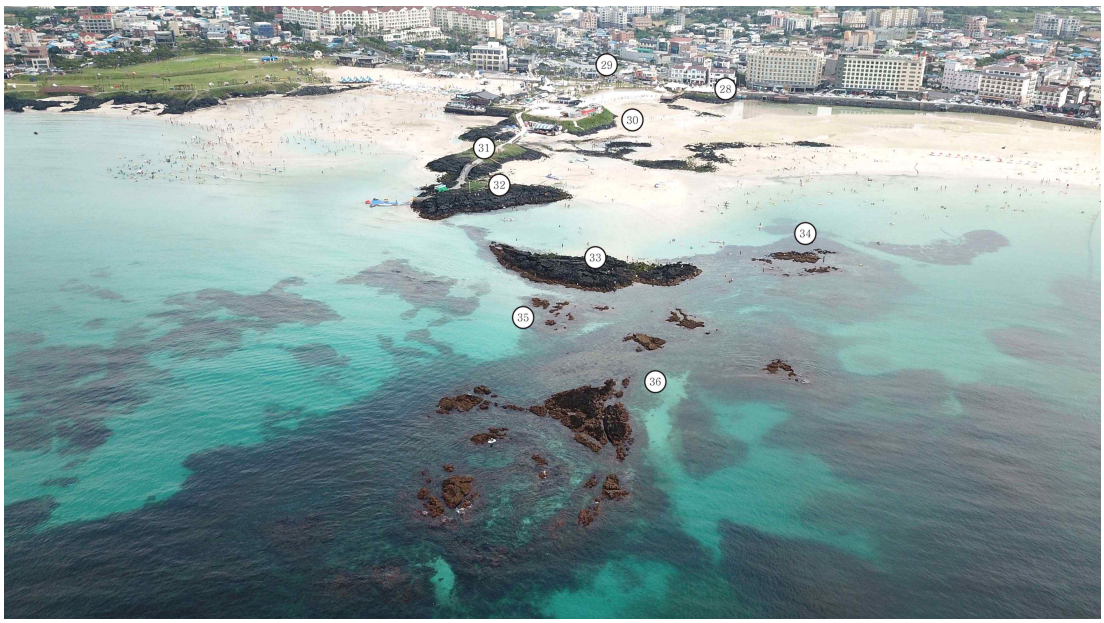
<그림 Ⅴ-5> 노릿질



(24)노릿질

함덕리 3구에는 ‘강영개’와 ‘당뒤성창’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매립되었다. 강영개는 조간대 중층에 있기에 물이 빠지면 배를 대지 못한다. 썰물에는 ‘올랫여’에 배를 붙여두었다가 ‘개남여[29]’를 보며 수위를 가늠하고, 밀물 때에 맞춰 서서히 포구 안으로 배를 들였다. 당뒤성창은 ‘가지갱이할망당’ 뒤에 있어서 ‘당뒤’라 부른다. 피서철이면 앞개에 있던 배들이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당뒤로 몰렸다. 피서객들을 실어 나르는 낚시배의 한철장사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림 Ⅴ-6>올렛여 주변



(28)당뒤성창 (29)강영개 (30)영알 (31)멜굿여 (32)불턱여 (33)올렛여 (34)노릿질곶 (35)개남여 (36)골체기틈바위

29) 개남은 가늠의 제주말이다.

2. 희룡이성창과 도릿개

‘희룡이성창’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600여m쯤 떨어진 곳이다. 이 일대는 함덕 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으로 일제시대 때 한희룡이라는 사람이 당대 최대의 포구를 꿈꾸었지만 실패한 곳이다. ‘난다실여’, ‘다실여’, ‘보리여’가 북서풍을 막아주어 “샛보름엔 당뒤, 갈보름엔 희룡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신흥과의 경계지역인 이 일대를 함덕 사람들은 희룡이성창이라 부르지만, 신흥리 사람들은 그냥 도릿개라고 부른다. 희룡이성창을 포함하여 도릿개 일대는 예로부터 함덕, 신흥 간 입어분규가 잦은 곳이다. 신흥이 분향된 첫 해인 191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합의가 수차례 반복되었다.

<그림 Ⅴ-7>희룡이성창 주변



(2)난다실여 (3)다실여 (4)불턱 (5)희룡이 성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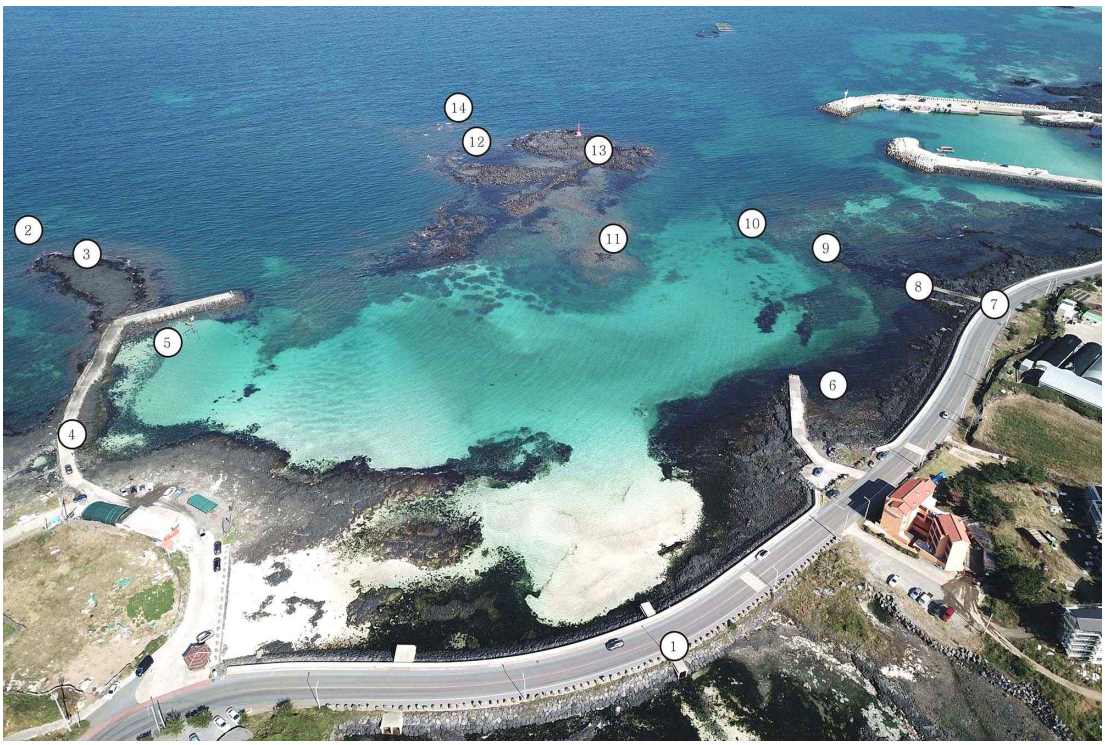
도릿개에서의 첫 분쟁에 대해서 신흥리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수석서기관 야마무라가 말하기를, 두 마을 공동의 땅으로 정하시오. 이로부터 매년 바람에 불면, 몸(모자반)은 신흥리에서 차지하고, 메역은 매년 함덕리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성립시켰다. 갑인년甲寅年(1914년).”

함덕과 신흥 사이에 갈등만 있었던 건 아니다. 같은 책에 다음의 기록이 남아있다.

“동네 유지 10여 인이 계를 조직하여 큰 그물을 사왔으나 고기 잡는 법을 알지 못하여 1년이나 방치했는데, 함덕리 하동 사람들이 찾아와 청하기를, 우리 동네 앞 포구에 어장은 있으나 어망이 없어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서로 합동하여 고기를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계원들이 승낙하여 계약을 맺었다. 어느 해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자손 대대로 병합하여 고기를 잡기로 하여 도장을 찍었다. 기해년己亥年(1899년).

<그림 Ⅴ-8>도릿개 주변



(1)도릿개 (2)난다실여 (3)다실여 (4)보리여 (5)희룡이성창 (6)얼개 (7)모녀동산 (8)거싯물 (9)메역여 (10)무여 (11)이겟여 (12)셋여 (13)소여 (14)섶여

<그림 Ⅴ-9>소여



‘소여’는 바다 한 가운데 있기에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강한 조류가 ‘소여’ 주변에 깊은 ‘소’를 만들었다. ‘소여’는 ‘소’牛와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깊은 ‘소’를 거느린 ‘여’라 해서 ‘소여’이다.

3. 가지가른당

함덕은 조천읍 내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당이 전승 또는 보존되고 있다. '일뤠당'이라 이름 붙은 곳만 일곱이고, '일뤠당' 기능 겸하는 당까지 합치면 열이 훌쩍 넘는다. 일뤠당이 많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함덕이 오래 전부터 번창한 마을이었음을 반증한다. '본향당'을 비롯하여 '산신당'과 '갯당' 등은 함덕의 다양한 생산기반과 그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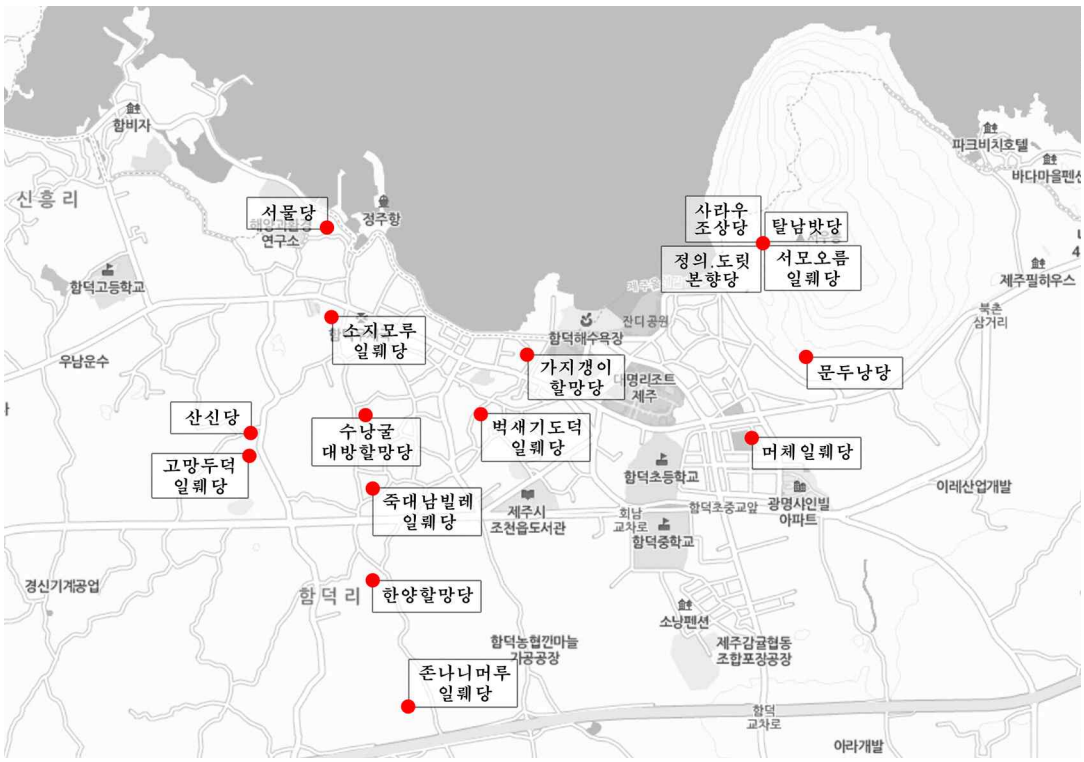
함덕이 큰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지표는 '가지가른당[30]'이다. 가지가른당은 함덕으로 시집온 여자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다. '사라우 조상당'은 구좌읍 덕천리에서 가지가른당이고, '문두낭당'은 대정에서 가지가른당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연유로 가지를 가르게 된 당이 있다. 4.3 당시 토벌대의 소개 작전으로 제주 중산간 마을이 대부분 전소되었다. 마을을 잃은 동북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 정착한 곳이 함덕이었다. 이들이 모여 자신의 본향당신을 모시고 가지가른당을 만든 것이다. '탈남밧당'은 선흘 사람들이 가지가른당이고, '정의.도릿본향당' 성읍과 교래리에서 가지가른당이다. 그리고 '머체일뤠당' 또한 교래리에서 가지가른당이다. '머체일뤠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을 통칭하여 '서모오름일뤠당'이라 부른다. 함덕의 끝자락인 서우봉에 모여 있기에 그리 부르는 것이다. '머체일뤠당'은 과거 함덕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였던 평사동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가지가른당이 본동에 자리 잡지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난 것을 보면서 지난날 시집살이와 피난살이의 고단함,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의연함을 상상해 본다.

30) 하나의 본향당本鄕堂을 다른 마을로 전승하여 새로이 모시는 신당神堂을 '가짓당' 혹은 '가지가른당'이라고 한다.

4. 멜굿

함덕 3대 의례는 정월 포제, 이월 영등제, 그리고 7월 멜굿이다. 멜굿은 멜(멸치)을 몰아다 주는 '말둥이영감'에게 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다. 매 년 열리는 멜굿은 8~10명의 심방이 동원되었고 7일 간 이어진다. '중툭굴개'에 마련된 제장으로 '사해용궁 사참봉[31]'을 맞이하는 것으로 굿이 시작되고, 굿의 마지막에는 참봉(도깨비)으로 변장한 주민들이 모두 어우러져 즐기는 참봉놀이를 벌인다. 굿이 끝나면 '말둥이영감'을 모신 제단에 가서 돼지머리와 각종 떡과 제물을 올린다.

<그림 Ⅴ-10> 함덕 소재 당의 위치



31) 사해용궁 사참봉, 새바당 가시지기 새참봉, 마바당 각지지기 마참봉, 한바당 물풀지기 한참봉, 놉바당 천발지기 놉참봉. 새바당 동해, 마바당 남해, 한바당 서해, 놉바당 북해. 가시지기는 어류, 각지지기는 패각류, 물풀지기는 해조류, 천발지기는 다족류. 지기는 지킴이이고, 참봉은 도깨비를 말한다. 위의 글은 『함덕향토지』(2017)에 나온 함덕 멜굿을 요약한 것이다

5. 바다밭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양은 바닷 속에 분포한 여의 면적이 좌우한다. 여가 많을수록 해초가 많고, 해초를 먹고 자라는 해산물이 많기 때문이다. 해녀의 입장에서 여가 없는 모래밭은 말 그대로 사막일 뿐이다. 함덕 바다는 1구,2구3구,4구 4개의 바다로 분리되었으나 1986년 통합되었다. 함덕 바다는 1구에서 4구로 갈수록 여는 적어지고 모래밭은 넓어진다. 이러한 해저환경의 차이는 해산물 판매수액 차이로 나타난다. 다음은 1985년의 1년 톳 판매수익이다. 1구 200만원, 2구 80만원, 3구 20만원, 4구 15만원. 1구과 4구는 열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의 차이는 조합원 간의 잦은 갈등을 불러왔다. 바다의 통합은 이런 갈등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었다. 통합 초기,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등, 1구 해녀의 반발은 거셌다. 하지만 그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김태흥씨의 중재 노력으로 조합원들은 갈등의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함덕 바다밭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상조하고 있다.

<그림 Ⅴ-11>족은사시미 샛사시미



(5)'희룡이성창'에서 (18)'앞개성창'까지 1구 바다. '족은사시미'는 2구와 3구 바다, (33)올랫여에서 동쪽 '샛사시미', '큰사시미'로 이어지는 바다가 4구 바다이다. 여와 모래밭의 분포에 따라 바다색의 차이를 보인다.

6. 후릿그물

1902년 부산에 그물공장이 세워졌다. 이곳에서 대규모 그물이 생산되면서부터 함덕의 후릿그물[32]은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방진망은 있었지만 그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다. 함덕의 넓은 모래밭에 거대한 그물을 드리우려 했던 한석봉 선생(1865년생)의 상상이 없었다면 후릿그물이라 불리는 어로기술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석봉 선생의 상상은 '큰그물'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었고, 뒤를 이어 짝선진, 새뱃그물, 사선진, 쌈판, 마늘여그물, 새선진, 뒷개그물 등 그물 접이 조직되어 함덕 8선진을 이루었다.

체계를 갖춘 후릿그물은 4척의 배가 동시에 작업하는 대규모 어로활동이다. 어획량 또한 대단하여, 연안에 들어온 멜(멸치)을 그물에서 퍼내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린다. '썩은 멜 장시(썩은 멸치 장수)'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멜이 넘쳐났으며, 8선진이 잡은 멜은 함덕에 큰 부를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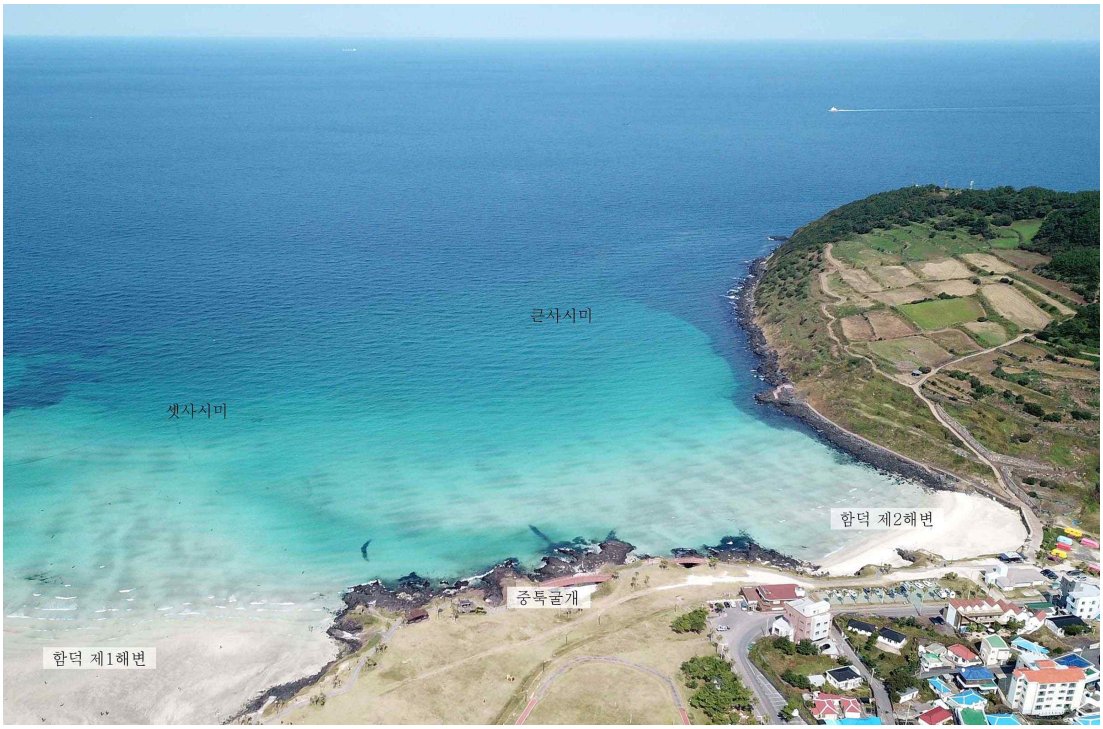
7. 사시미

이증李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함덕의 '앞개'와 '모살물개'를 '사시포'沙時浦라 기록하고 있다. 민간에서 '사시미'라 불리던 이름을 한자로 차음한 것으로 보인다. 사시미의 정확한 듯은 알 수 없지만 함덕 바다의 모래밭과 연관성이 깊다. 함덕의 모래밭은 연안에서 바닷 속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앞개성창'에서 '올래여'까지 '족은사시미'(작은사시미). '올래여'에서 '중툭굴개'까지 '샛사시미'(중간사시미), 그리고 '중툭굴개'에서 '서우봉'까지는 '큰사시미'라 부른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면 족은사시미라 불리는 모래사장이 가장 넓어 보인다. 하지만 사시미를 이해하려면 어부의 입장이 되어 바다 속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지도에서 보이듯 족은사시미의 바닷 속 모래밭은 여로 에둘려 있다. 하지만 샛사시미부터는 여의 막힘없이 넓게 펼쳐져 있고, 큰사시미는 바다 방향으로 800m에 이르는 면적이 모두 모래밭이다. 후릿그물은 폭이 300m에 이르는 그물을 이용하여 멜을 잡는 어로기술이다. 수심 깊은 곳에서 그물을 드리우고, 멜싹(멸치 떼)을 그물로 에워싼 채 연안까지 몰고 가야 한다. 그물의 손상 없이 성공적으로 멸치를 잡으려면 넓은 모래밭

32) 후릿그물은 공동어로 조직이다. 공동출자 공동어로 공동분배 한다. 30~50명이 한 접을 이루었다. 최전성기에는 10개의 그물접이 있었다. 8선진 중 뒷개그물은 북촌의 그물접이다.

은 필수적이다. 함덕 바다에서 후릿그물을 펼치기에 제격인 곳이 바로 큰사시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눈에 가장 좁아 보이는 함덕 제2 해변을 어부들은 큰사시미라 불렀던 것이다.

<그림 Ⅴ-12> 큰사시미 주변



'중툭굴개' 좌우로 '샛사시미'와 '큰사시미'가 펼쳐진다. '중툭굴개'는 '멜굿'의 제장祭場이다.

8. 관댓모살

멜은 여름멜과 가을멜이 있다. 여름멜은 참멜과 넙멜, 가을멜은 눈뽀롱이. 식용으로는 참멜이 가장 좋다. 후릿그물 시절 넙멜, 눈뽀롱이는 거름용으로 썼다. 참멜은 테역밧(잔디밭)에서 말리고, 거름멜은 모살밧(모래밭)에서 말린다. 넙멜과 눈뽀롱이를 말리던 곳은 '관댓모살', 현재 함덕 제2해변이다. 멜후리기는 밤에 시작한다. 멜이 야행성인데다, 어두운 바다에서 멜싹은 거대한 불빛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다. 어두운 밤바다이지만 하얀 사시미가 주변의 빛을 반사하여 멜비늘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해가 떨어질 무렵 해상걸리(탐어선) 4~5척이 바다로 나간다. 멜싹을 발견하면 횃불을 이

용해 출동 신호를 보낸다. 첫 번째 멜싹은 선진 몫이다. 두 번째 멜싹은 중진, 세 번째 멜싹은 말진. 대기하고 있던 4진[33]까지 출동하는 날이면 함덕의 밤바다는 어부들의 노래 소리와 파닥거리는 불빛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함덕의 밤바다는 60년대 중반 불배(집어등 어선)가 등장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배에 불을 밝히고 들망을 이용한 신식 어로기술은 먼 바다에서 멜을 잡아들였다. 연안으로 들어오는 멜은 점 점 줄어들어 사시미는 텅 비고, 관댓모살엔 바람만 날리게 되었다. 백사장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함덕은 1970년들어 해수욕장을 개장하였다.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더니 2010년 방문객 수는 제주 60만 명을 넘어섰다. 빛나던 멜은 사라지고, 인공조명이 밤바다에 불을 밝히고 있다. 1년에 한 번이던 멜굿을 대신하여 각종 축제가 매일 굿을 벌이고 있다. 멜을 말리던 '관댓모살'은 이제 전 국민의 관광지가 되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 것을 두고 상전桑田이 벽해碧海가 되었다 하던가. 하지만 함덕은 어전漁田이 인해人海를 이루었다 해도 무방할 것 같다.

33) 선진에서 4진까지의 순서는 매일 로테이션 된다.

Ⅵ. 북촌 바다밧 이름과 생활사

북촌은 조천읍의 동쪽 마지막 마을이다. 서모봉과 인접해있고 동쪽 소놀이를 경계로 구좌읍 동복리와 인접해 있다. 서모봉에 인접한 '해댕이'(해동)는 '연수밧알' 주변에 마을을 이루었고, '뒷물성창'(큰성창)를 주변에는 섯가름 1동, 사릿거리 2동, 동카름 3동, 세 개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바다는 해동, 1동, 2동, 3동 넷으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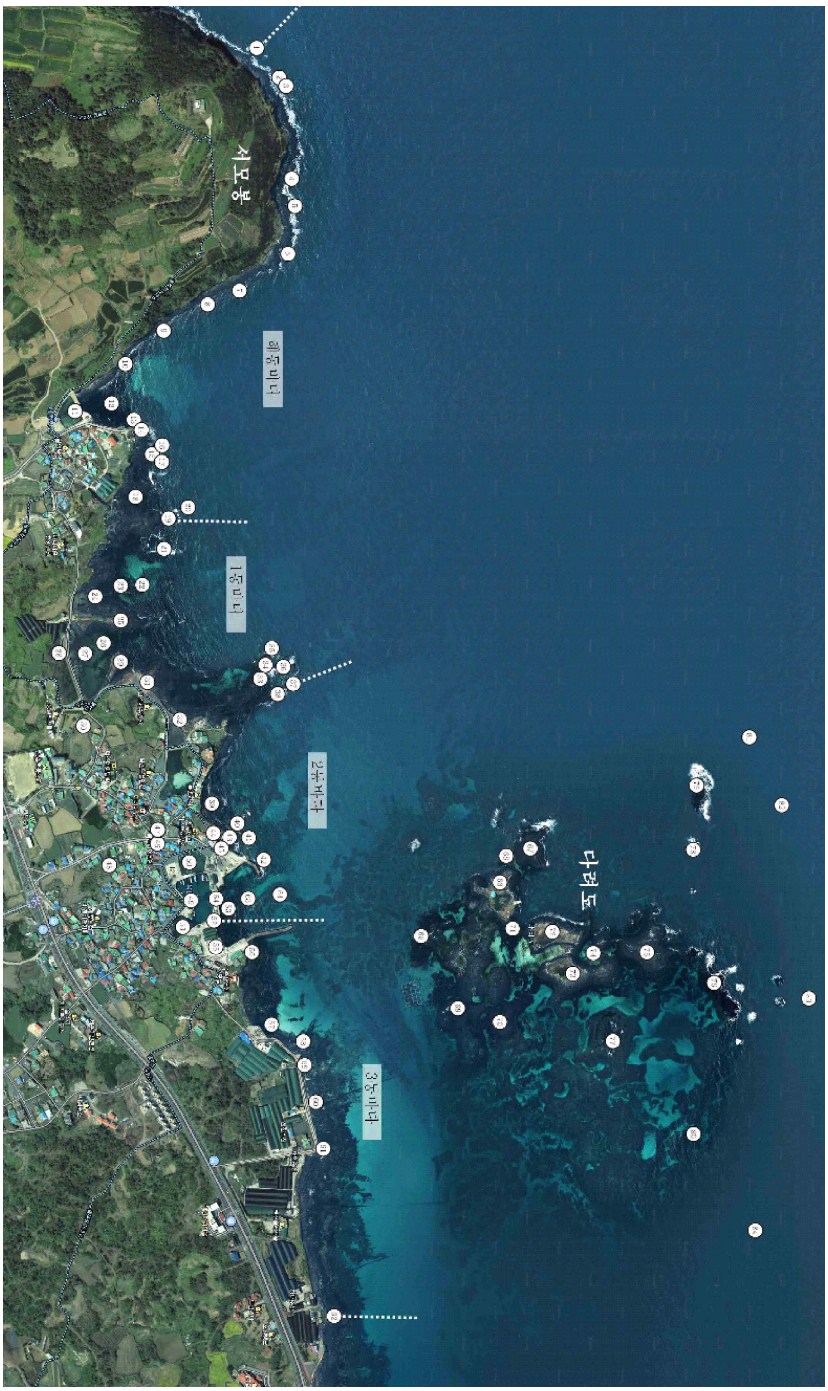
해동 바다는 '새배떡개'에서 '몰여코지'까지
1동 바다는 '몰여코지'에서 '족은여'까지
2동 바다는 '족은여'에서 '돈지'까지
3동 바다는 '돈지'에서 '소놀이'까지

<그림 Ⅵ-1>고광민의 북촌 바다밧 조사[34)]



34) 고광민(1990-2000b) 참조

<그림 Ⅵ-2> 북촌 바다밧 이름[35]



35) '다음'지도 켑쳐 후 바다밧 이름 기입

(1)새배떡개
(2)큰빌레(톳빌레)
(3)돗통
(4)애기먹돌통
(5)젯상빌레
(6)선반코지
(7)족은선반코지
(8)공할망빌레
(9)셋성제
(10)생이코지
(11)연수밧알
(12)개통
(13)동글락통
(14)북돌코지
(15)하르비통
(16)진빌레
(17)키나는여
(18)똥개
(19)몰여코지
(20)성근여
(21)멩지여
(22)미여
(23)안미여
(24)대섭개
(25)닷거리
(26)검섯개
(27)우왕물
(28)검섯개물
(29)수덕동산
(30)기무라터
(31)개코지
(32)말개
(33)큰여
(34)큰여코지
(35)지방여
(36)방앳여
(37)밧방앳여
(38)족은여
(39)알통
(40)안손쟁잇여
(41)밧손쟁잇여
(42)빗긴여
(43)구짓모루동산
(44)구짓모루당
(45)도댓불(등명대)
(46)뱃구들동산
(47)도가칩
(48)당팟당
(49)뒷물성창
(50)고치낭알
(51)당팔
(52)돈지
(53)들렁머리코지
(54)튼석
(55)자운당
(56)조싯물
(57)삭수구밋개(선진터)
(58)용물코지
(59)용물
(60)칠머리당
(61)창꼼
(62)소놀이
(63)도
(64)도릿줄
(65)검둥이여
(66)밑낫괴
(67)톤낫괴
(68)진돗목
(69)개돗부리
(70)낫괴
(71)깅이목
(72)밑당신여
(73)당신여
(74)다려개
(75)팽풍여
(76)주주름
(77)너북여
(78)족은새배
(79)새배
(80)우악절
(81)웃모를
(82)만쟁이거멀
(83)샛모를
(84)엉난모를

1. 서모봉

북촌 사람들은 서우봉을 *‘서모봉’이라 부른다. 북촌마을 서쪽에 있는 오름이란 뜻이다. 함덕도 과거에는 서모봉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서우봉으로 굳어지고 있다. 서우봉이 함덕의 동쪽에 있는 산이기에 서녘 서西를 쓰지 않고 무소 서犀를 쓴다. 무소가 바다에서 뭍으로 기어오르는 형상이라 하여 서우봉(犀牛峰)이라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함덕에 자리한 신당神堂인 ‘서모오름일뤠당’이라는 이름 속에는 서녘 서西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은 함덕과 북촌이 서우봉을 반씩 나누어 갖고 있지만 서우봉이 원래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북촌 사람들이 드는 근거 중에 하나이다.

<그림 Ⅵ-3> 서모봉



서모봉은 ‘서모오름’이라고도 한다. 제주의 오름들 중 봉수대가 있었던 오름을 봉이라 부른다.

제주의 360개가 넘는 오름 중에 보리농사가 가능한 오름이 둘 있다. 하나는 중문의 '베릿네오름'이고 다른 하나는 '서모봉'이다. 여타 오름들은 대부분 굵은 화산 송이가 표층을 이루는데, 베릿네오름과 서모봉은 찰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모봉의 된땅이 보리농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서모봉 남쪽 기슭에 오래 전부터 기와를 굽던 와막瓦幕터가 있었다고 하니 서모봉 흙이 얼마나 조밀한지를 알 수 있다.

검질(잡초)을 맬 때는 뿌리까지 메야 한다. 하지만 서모봉의 땅은 조금만 가물어도 돌처럼 굳어버린다. 검질 매기(잡초 제거)가 그만큼 어렵다. 전복 껍질을 날카롭게 하여 잡초의 밑동이라도 베어내야 했다. 뿌리가 남아있으니 검질 매기는 반복된다. 이것이 서모봉 밭농사에 전해지는 '조갱이 검질[36]'이다. 제주에는 '된땅은 딸에게 주고, 뜬땅은 아들에게 준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 말은 서모봉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하지만 후릿그물[37]이 생기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함덕 멜굿을 행하는 심방의 말미(사설)에는 이런 말이 있다. '멜을 밭에 들여 보리농사 지으니 만석곡이 들었더라' 제주의 본격적인 멜거름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멜거름으로 된땅을 식혔더니 잡초, 거름, 배수 걱정 덜어내고 딸들이 만석꾼이 되었더라.

2. 무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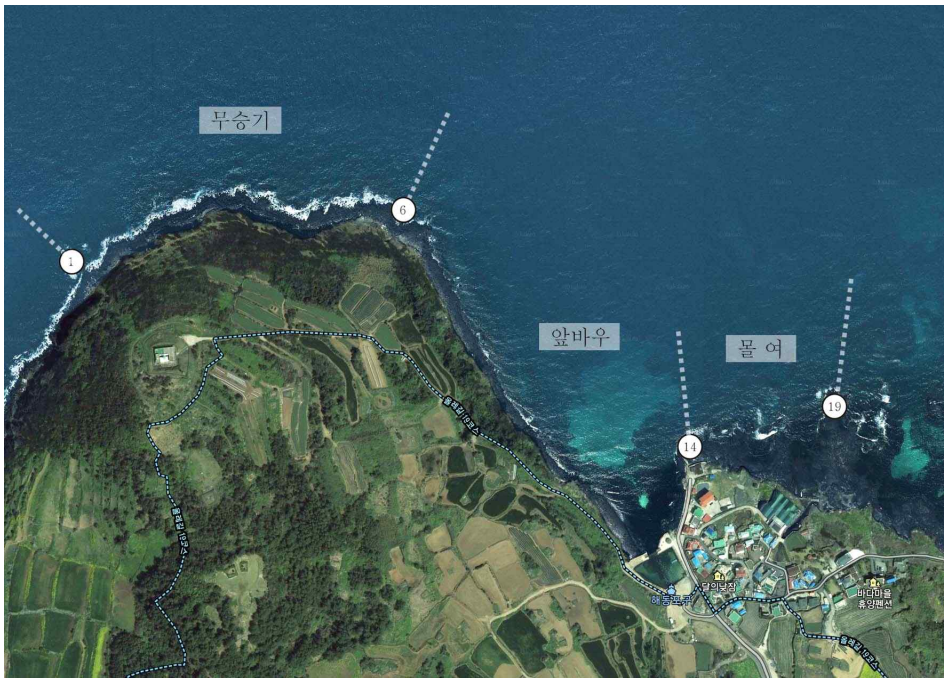
해동바다는 '무승기', '앞바우', '몰여'로 나눈다. 서모봉 북쪽 앞 바다가 '무승기'이다.

무승기에는 북촌과 함덕의 경계인 '새배떡개', '큰빌레', '애기먹돌통', '젯상빌레', '선반코'지가 차례로 있다. 무승기는 험한 바다지만 해산물이 많아서 상군해녀들이 자주 다니는 바다이다. 큰빌레의 아래쪽에는 오래 전 기우제를 지낼 때 희생돼지를 담던 굴이 있다. 이 굴을 '돗통'(돼지통)이라 부른다. 돗통에 돼지를 담는 일은 상군해녀의 몫이다. 수심이 깊기 때문이다. 돼지를 끌어안은 해녀가 "큰년아, 장항 더끄라!"라고 외치면서 물에 들어가면 비가 온다는 말이 전해진다. 한라산 백록담에 빠진 선비가 돗통으로 나왔다는 전설도 더불어 전해지고 있다.

---

36) 조갱이는 빗재기, 조갱이, 전복, 마드레. 전복의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37) 후릿그물은 함덕 8선진 중 하나인 '뒷개그물'은 북촌 해동과 1동의 그물 조직이다.

<그림 Ⅵ-4> 무승기



해동바다는 무승기, 앞바우, 몰여로 나눈다. '무승기바다'는 (1)'새배떡개'에서 (6)'선반코지'까지, '앞바우바다'는 '선반코지'에서 (14)'북돌코지'까지, '몰여바다'는 '북돌코지'에서 (19)'몰여코지'까지이다. 마파람(남풍)때는 '무승기', 갈바람(서풍)때는 '앞바우', 샛바람(동풍)때는 '몰여바다'에서 물질을 한다. 남풍과 서풍은 서모봉이 막아주고, '몰여코지'는 미약하나마 동풍을 막아주는 것이다.

<그림 Ⅵ-5>큰빌레



(1)새배떡개 (2)큰빌레(돗빌레) (3)돗통 : 직사각형으로 생긴 통로 안에 희생돼지를 넣었다고 한다.

무승기로 가려면 서모봉 기슭 좁은 길을 따라 1km쯤 걸어야 한다. 거기서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문제였다. 물질을 마치고 40kg이 넘는 망사리를 등에 지고 20m가 넘는 절벽을 '몬죽 몬죽' 기어올라야 했기에 '몬죽이알'이라고 불렀던 것일까?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 북촌경로당에 다니는 할머니들 대부분이 '몬죽이알'을 오르내렸던 해녀들이었다. '몬죽이알'이라 이름붙인 것을 보면 일단 내려가서 전복 따는 일이 급했던 것 같다. 무승기로 물질 갔던 동료 해녀가 솔치[38]에 발이 쏘여 걸을 수 없었다. 친구를 등에 업은 채, 손으로 나무 밑둥을 쥐고 발로 '괭이밥'을 딛고서 '몬죽이알'을 기어올랐던 경험담을 북촌경로당 할머니가 전해 주었다. '몬죽이알'을 기어오를 때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괭이로 파놓은 홈을 '괭이밥'이라 불렀다.

<그림 Ⅵ-6>몬죽이알1



38) 솔치는 독을 품을 물고기이다.

<그림 Ⅵ-7>몬죽이알2



북촌과 함덕의 경계 (1)새배떡개. 함덕에서는 무승개라고 한다. 새배떡개 동쪽(왼쪽)이 북촌이다.

해녀들이 입는 고무옷은 1970년 대 처음 도입되었다. 소중기를 입은 해녀는 체온저하 문제 때문에 1시간 이상 물질이 어렵다. 고무옷을 입은 해녀는 5시간 물질이 가능하다. 해녀들의 불만이 쌓이고, 조합원들 사이에 고무옷 허용을 두고 맞서게 되었다. 결국 고무 옷을 허용하게 되었지만 험한 바다에서만 물질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 그 당시 고무옷은 20만원을 호가하는 비싼 물건이었다. 하지만 해녀들의 고무옷 갈등은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무옷을 입으면 병이 난다. 고무옷 때문에 해산물이 다 죽는다. 여러 괴담이 돌았다. 낯선 문화에 대한 터부가 있었던 것이다. 고무옷 소동은 1년이 지나면서 잠잠해졌다. 모두들 검은 고무옷을 입고 선반코지 불턱에 앉아 1년 전 소동을 회상하며 웃었다고 한다. 선반코지 앞은 북촌의 험한 바다, 무승기 바당이다.

새배떡개와 큰빌레 사이에 동굴 두 개가 보인다. 일제 때 만든 일본군 진지동굴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배떡개 옆에는 무승기가 썰물일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동굴이 하나 있다. 4.3때 북촌 해동 사람들이 숨어 지냈던 동굴이다. 그 당시 이 동굴에 숨어 울던 갓난아기는 살아남아 72세의 할머니가 되었고, 지금도 왕성하게 물질을 하고 있다.

3. 큰성창

북촌을 '뒷개'라고 불렀다. 뒷개의 포구를 '뒷물성창'이라 부른다. '들렁머리코지'와 '구짓모르동산'이 뒷물성창으로 불어오는 동, 서의 바람을 막아준다. 뒷물성창 안쪽 동, 서로 '당팔'과 '고치낭알'이 있고, 밖으로는 '튼석'이 있다. 뒷물성창은 일상적으로 배를 붙이는 자리이고. 당팔과 고치낭알은 태풍이나 심한 바람을 피해 배를 담아두는 곳이다.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뒷물성창은 바닥을 드러낸다. 뒷물성창보다 수심이 깊은 튼석[39]과 들렁머리코지는 썰물 때 임시로 배를 대는 자리이다. 이 전체를 '큰성창'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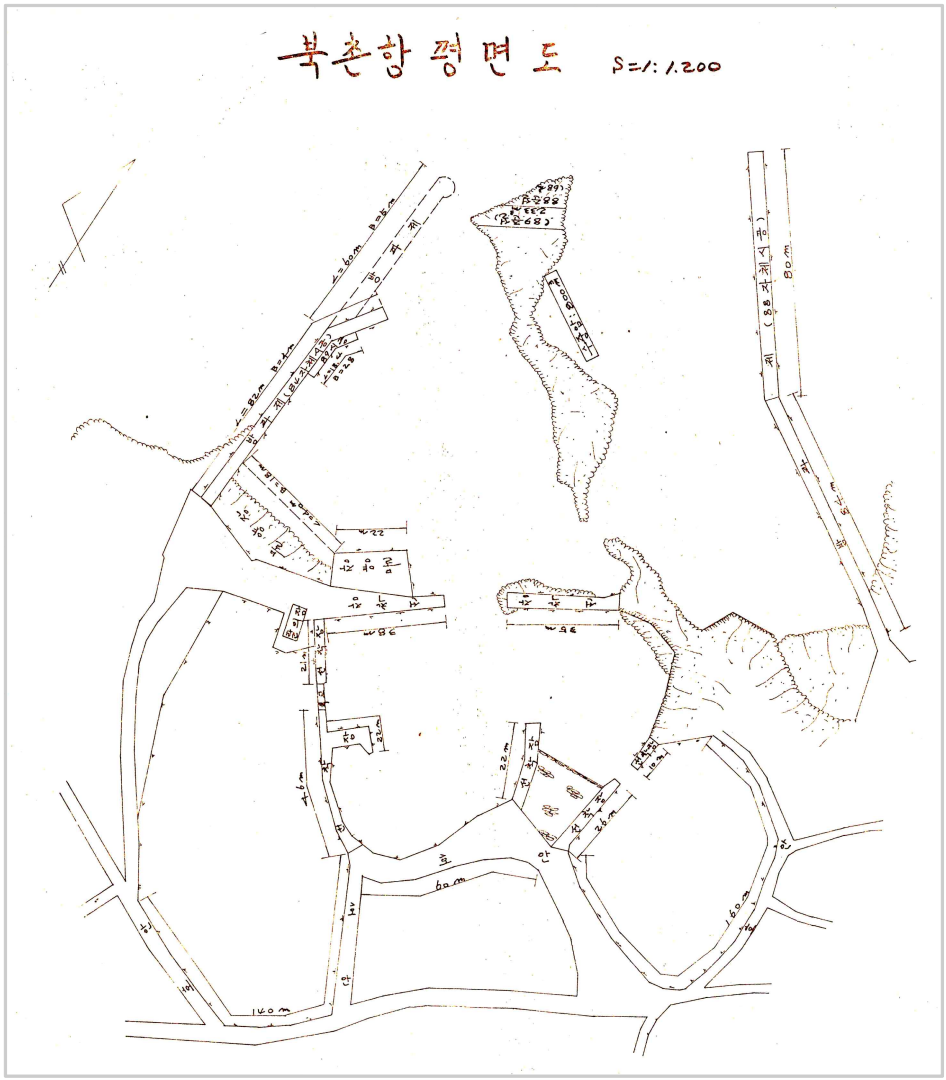
<그림 Ⅵ-8> 북촌 포구



(43)구짓모르동산 (49)뒤물성창 (50)고치낭알 (51)당팔 (53)들렁머리코지 (54)튼석. 포구공사로 '튼석'은 방파제로 바뀌었다.

39) 튼석 썰물에 배를 어디에 붙여 두었을까. 제주어 중에는 '걸석'과 '튼석'이 있다. '걸석'이란 '걸리다'의 어간인 '걸'과 '석'席이 모아져 이루어진 말이다. 썰물에 배가 '걸리는 자리'라는 말이다. 그 반대현상을 두고 '튼석'이라 이른다. 이는 '뜨다'의 제주어 '트다'에서 비롯된 말이다. '튼석'은 썰물 동안 배가 '트는 자리'라는 말이다. ...(중략)...'걸석'에 있는 배는 물을 잃은 고기와 같다. 그러니 어떻게든 '튼석'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제주도 배들이 처한 숙명이다. 그 극복은 포구마다 달랐다(고광민, 2004a: 392)

<그림 Ⅵ-9> 북촌항 평면도



1972년 3월에 촬영된 사진이다. 큰성창 내內 '한뱃당'이라는 빌레 위로 둑을 쌓는 중이다. 한 집에 한 사람씩 북촌 사람 전원이 동원되었다. 여성이 21명, 남성이 7명이다. 북촌은 4.3 때 500여 명이 희생된 곳이다. 4.3 이후 노동 가능한 18세 이상 남자의 수는 30여 명이었다. 톱질, 쟁기질, 사공질, 물질을 기본이고, 집을 짓고, 길을 딱고, 둑을 쌓는 일 모두 북촌 여성의 몫이었다.

<그림 Ⅵ-10>뒷물성창





(44)구짓모르당 (49)뒷물성창 (50)고치낭알. 1972년 사진을 보면 새로 쌓은 둑 아래 '한뱃당빌레'와 '도가칩깍'(사진 아래 암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뒤로는 '구짓모르당', '도댓불'(등명대), '불턱', '그물살레'가 보인다.

4. 검섯개와 코지물질

북촌 1동의 바다는 '몰여코지'에서 '족은여'까지이다. 이곳은 북촌에서 가장 복잡한 해안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닷거리'와 '개코지' 사이에 움쑥 들어간 '개'가 하나 있다. 이곳에 복잡한 해안지형을 이용한 어로시설, '검섯개'가 자리하고 있다.

'검섯개'로 불어오는 동풍은 '개코지'가, 서풍은 '닷거리'가 그리고 북풍은 '수덕동산'이 막아준다. 자연지형이 모든 방향의 해풍으로부터 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 안쪽에는 담수를 쏟아내는 '검섯개물'과 '우왕물'이 있어 바다벌레(소)로부터 배를 보호해 준다. '검섯개'는 썰물에 바닥을 드러낸다. 하지만 북풍을 막는 '수덕동산'이 썰물 때 배를 대는 '튼석'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검섯개'는 포구 앞에 돌담을 쌓아 야간에도 안전하게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갯도'를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 돌담의 주 기능은 고기를 가두어 잡는 '갯담'이다. 포구이면서 튼석이고, 갯도이면서 갯담이 바로 '검섯개'이다. '검섯개'는 해안지형을 이용하여 좁은 공간 안에 포구의 모든 기능을 갖추어 놓은 보기 드믄 사례이다.

<그림 Ⅵ-11>검섯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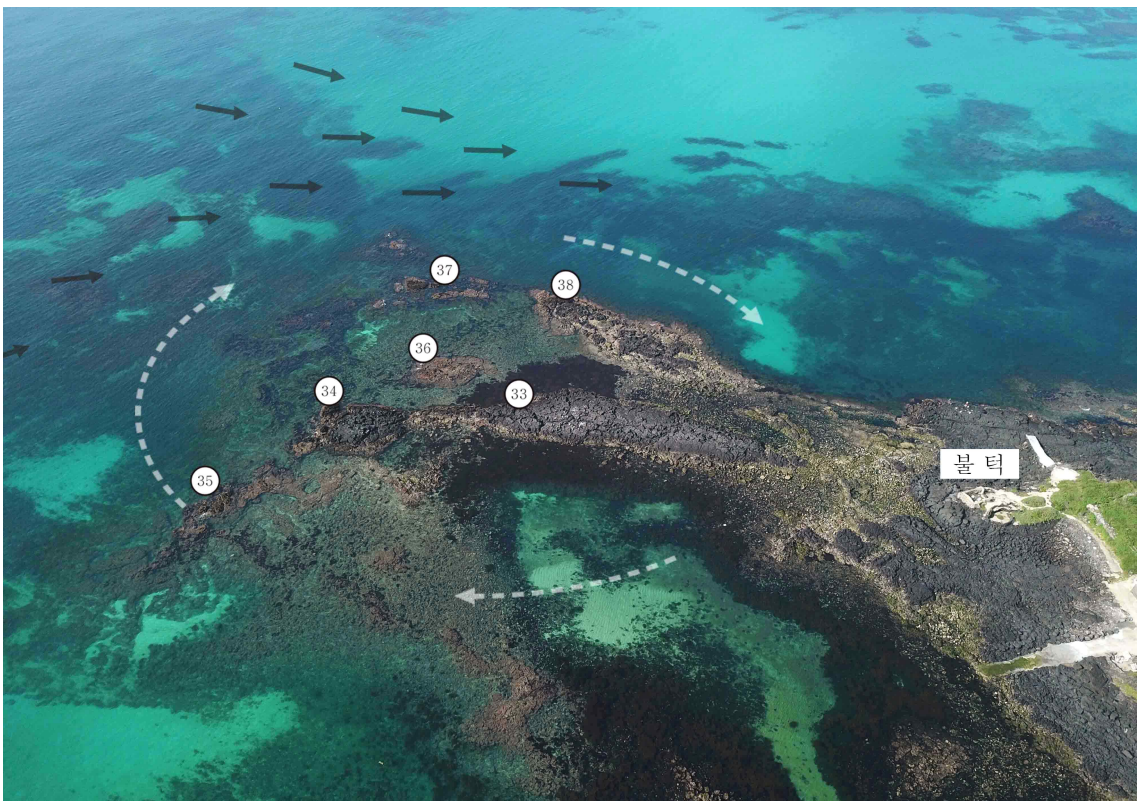


(25)닷거리 (26)검섯개(갯담) (27)우왕물 (28)검섯개물 (29)수덕동산 (30)기무라터
(31)개코지 (30)'기무라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 '기무라'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다.

‘검섯개’ 동쪽에는 ‘코지’라 부르는 바다밧이 있다. ‘코지’에는 ‘여’가 여럿이다. ‘코지’에서의 물질은 순서가 있다. 썰물 때 물질은 불턱에서 출발하여 (33)큰여 (34)큰여코지 (35)지방여 (36)방앳여 (37)밧방앳여 (38)족은코지 순서로 물질을 하고 물질이 끝나면 다시 불턱으로 돌아온다. 조류의 방향이 반대인 밀물 때의 물질은 역순이다. 북촌 1동 해녀들은 이 곳에서의 물질을 ‘코지물질’이라 부른다. 썰물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밀물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제주바다의 공식에 따라 ‘코지물질’의 순서가 정해진 것이다.

제주 어느 바다이든 험하지 않은 곳이 없다. 조선의 관료 ‘이형상’은 이를 ‘검석속립’劍石束立이라 표현하였다. 하지만 제주 어느 바다이든 이에 적응하지 못한 곳이 없다. ‘검석속립’에서 어민들은 포구를 만들어 냈으며, 해녀들은 생애의 양식을 건져냈다.

<그림 Ⅵ-12> 코지 주변



검은 화살표는 썰물 때 조류의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5. 뱃쿠들과 당쿠들

북촌 마을이 자리를 튼 '큰성창' 주변엔 두 개의 동산이 있다. 큰당이 있는 야트막한 '구짓모루당동산'과 '도가칩[40]'이 자리한 언덕진 '뱃구들동산'이 그것이다. 구짓모르동산은 성창 안에서 '고치낭알'을 이루었고, 밖으로는 '빗긴여', '밧쟁잇여', '손쟁잇여', 바다밧을 만들었다. 뱃구들동산의 두 줄기, '한뱃당'과 '도가칩깍'은 성창 안으로 뻗었고, 배후에는 '정짓모살'을 두었다. '사원잇물', '도가칩물', '고냥물', '정짓물' 모두 뱃쿠들동산 품에서 나온 것이다. 뱃쿠들동산의 성창줄기 사이사이는 배들의 쉼터이다. 큰당이 편히 들어앉은 구짓모르동산을 '당쿠들'이라 부르듯, 구들장에 배를 들여 놓은듯 안심이 되어 뱃쿠들동산이라 부른 것일까?

<그림 Ⅵ-13>북촌포구 주변



(43)구짓모르동산 (44)구짓모르당 (45)도댓불(등명대) (46)뱃쿠들동산 (47)도가칩 (48)당팟당 (49)뒷물성창 (60)칠머리당. 빨간색은 용천수를 표시한 것이다. (1)정짓물 (2)사원잇물 (3)고냥물 (4)도가칩물 (5)용물

40) 도가칩은 '도가집'을 '도가칩' 또는 '도아칩'이라 발음한다. 도가칩은 지금의 동사무소나 마을회관 같은 곳이다. 마을지를 보관하고, 관혼상제를 위한 제례용품과 농, 어업에 쓰이는 도구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큰당의 신神은 '노보름한집'과 '용녀부인'이다. 큰당은 1년에 네 차례 마을의 큰 제를 지낸다. 노보름한집은 생산, 물고, 해녀, 어선을 관장하고, 용녀부인은 가족과 육아를 관장한다. 족은당에는 '할망신'과 '하르방신'이 있다. 요왕황제국 딸과 사위다. 요왕황제가 불량한 사위를 딸과 함께 북촌리로 귀양 보냈다고 한다. 풍어를 기원하는 '연왕코사'와 배를 신축할 때 진경進慶을 비는 '장지코사'는 하르방신에게 빌고, 아이들의 치병은 할망신에게 빈다.

큰당은 '구짓모루'에 있다 하여 '구짓모루당'이라 부르고, 족은당은 '당팟'과 붙어있어 '당팟당'이라 부른다. 또한 족은당이 들어앉아 있기에 이곳을 '당쿠들'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큰당도 당쿠들이라는 말을 혼용하여 쓴다.

북촌 마을 사람들은 족은당의 하르방신을 '노보름한집'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큰당의 '용녀부인'은 본부인이고 족은당의 '할망신'은 족은부인인 것이다. 두 당을 모시기가 힘드니 당을 합치자는 북촌의 젊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정에 어두운 의견이라 하여 유보되었다고 한다. 북촌 본향당 '본풀이' 외전外典이라 해야 할까? 북촌의 당신堂神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가는 듯하다.

6. 다려

'볼락'이 썩어지도록 많아 잡힌다 하여 북촌을 '썩은 볼락'이라 불렀다. 그만큼 어장이 좋다는 말이다. 이는 해녀의 수에서도 나타난다. 해녀의 수가 급감하던 1998년 조사에서 북촌 해녀의 수는 300명이었다. 다려도는 북촌 어장의 30%를 차지한다. 다려의 해산물이 좋기에 북촌 해녀들은 다려 물질을 선호한다. 과거에 해녀들은 다려까지 터우를 타고 갔다. 터우 한 대에 해녀 3~4명이 붙어 간다. "선개 못 물민 도새기 폴앙 물었다"는 옛 말이 전해진다. 배삯을 못 내면 돼지 팔아서라도 물어야 했다는 말이다. 선개는 메역(미역)으로 대신 냈다. 돼지를 팔아야 할 정도는 아니고 자기가 조문(채취한) 메역의 20~30% 정도를 내어 준다.[41] 북촌에는 터우가 대략 30여 대 있었다고 한다. 다른 마을에 비해 터우가 많았던 것은 다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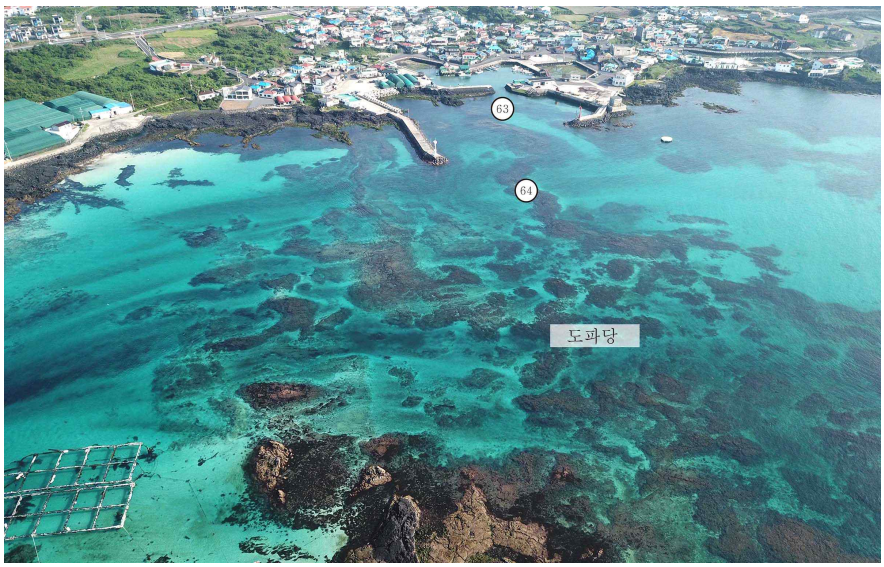
41) 터우 사공은 해녀를 싣고 '다려'를 오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해녀들이 조문 미역을 터우 위로 끌어올리는 일도 해야 한다. 채취한 미역은 해녀와 사공의 머릿수에 맞춰 1/n로 나눈다. 사공 몫을 '사공찍', 좀녀 몫을 '몸찍'이라 부른다. '찍', '쩍시'는 '몫'을 이르는 제주말이다.

<그림 Ⅵ-14> 북촌항 상공에서 바라본 다려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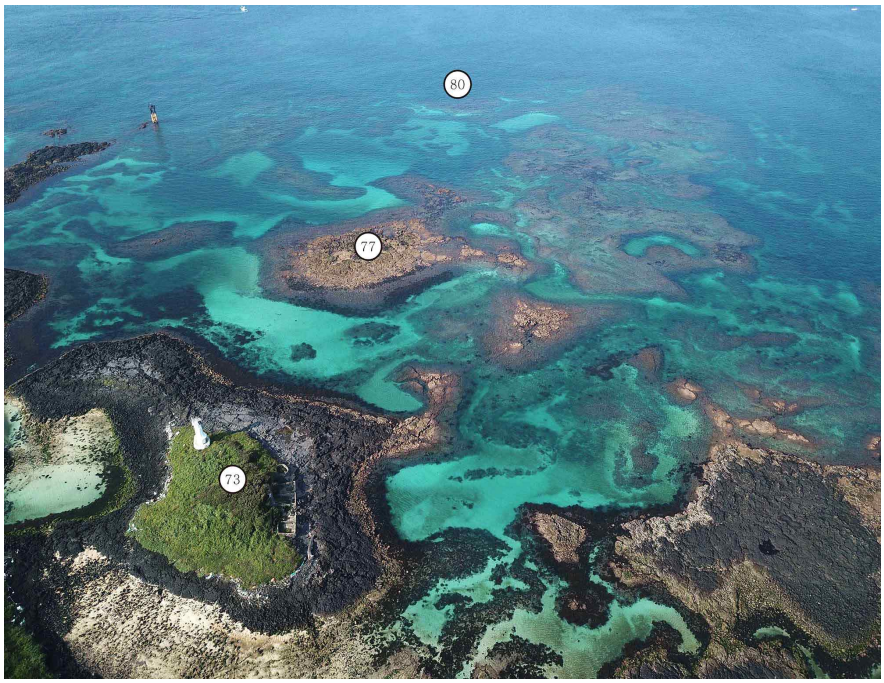
1970년 부산에서 미역양식이 성공하기 전까지 메역은 제주 해안마을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였다. 메역은 마을의 공동자산이기에 허채許采와 금채禁采 시기를 마을에서 정한다. 메역조문(미역채취)을 허許하는 허채 이후 이루어지는 첫 조문을 '모녀메역조문'이라 한다. 모녀는 먼저라는 말이다. 모녀메역조문은 큰물성창 주변 '도'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은 '도파당'을 건너 '다려메역조문'이 시작된다.

<그림 Ⅵ-15> 도파당 주변



(63)‘도’는 성창으로 오가는 바닷길을 말한다. 또한 성창 주변 일대의 갯가를 통칭하는 말이다. ‘도’는 북촌 해동, 1,2,3동 해녀의 공동어장이다. 지금도 구쟁기, 해삼 등을 이곳에서 모녀조문 한다. (64)‘도릿줄’을 따라 ‘다려’로 가는 바닷길을 ‘도파당’이라 부른다.

<그림 Ⅵ-16> 우악절 주변



(73)당신여 (77)‘너북여’는 넓적하게 생겨서 ‘너북여’이다. (80)‘우악절’은 해저지형의 굴곡이 심해 물살이 거친 곳이다. 물살이 ‘우왁 우왁’ 친다 하여 ‘우악절’이다.

'다려메역조문'은 동쪽으로 '너북', 서쪽으로 '낫괴', 더 깊은 바다 '웃모를', '샛모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조문인 '말차메역조문'으로 마무리 된다. 다려메역조문이 시작되면 터우 30여대가 매일같이 다려를 오고 갔다. 4.3 때 북촌 마을이 전소되면서 터우도 불살라졌다. 4.3 이후에는 함덕에서 배를 빌려와서 다려 물질을 해야 했다. 그러던 사이 마을 사람 몇 몇이 작은 어선을 구입하기도 했지만, 1970년 초 북촌에 배 8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는 계속되었다.

<그림 Ⅵ-17> 다려도



사진: 고광민(1997)제공

7. 계숙

마을 앞 바다에서 물놀이만 하던 소녀들은 14살 무렵 첫 물질을 시작하게 된다. 소중기를 입고 테왁을 지고 어른들 사이에서 물질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10m 수심에서 미역을 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 물질 나간 어린 해녀들은 메역 꼬랑지만 끊어 오기 마련이다. 깊은 물에 박힌 메역 뿌리까지 손을 뻗기엔 어린 숨이 짧은 것이다. 상군 해녀가 메역 꼬랑지만 끊어온 어린 해녀에게 '머리' 하라고 뿌리가 붙어있는 '메역'을 준다. 북촌에서는 이것을 '계숙 준다'고 말한다. 머리 없이 미역 꼬랑지만을 연결하여 말려도 '미역낭'(말린 미역)을 만들 수 있고, 내다 팔 수 있다. 하지만 의관衣冠의 마무리가 모자이듯, 뿌리가 붙은 '미역낭'은 해녀의 자존심이었다. 또한 바다의 것을 온전한 상태로 건져내는 것이 바다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해녀가 지켜야 할 미덕으로 알았다. 필자에게 '계숙'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북촌 할머니는 14살 첫 메역조문 때, 자신의 빈 손에 미역을 쥐어 주었던 할머니가 생각난다며 촉촉해진 눈을 감추신다.

Ⅶ. 결 론

1. 결론

1970년은 한국 근대화의 출발점이다. 또한 원초경제와 개발경제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전후로 생태적 순환에 의지하던 제주의 원초경제는 근대화, 산업화에 기반을 둔 개발경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거름이 화학비료로, 소가 경운기로, 몰방애는 정미소로, 용천수는 수도와 전기로 바뀌었다. 생산양식의 변화는 정신세계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생산력 증대는 지상과제가 되었고, 효율성을 가로막는 것은 혁파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의 기치 아래 마을의 공적 기능은 관官으로 이양되었고, 자본의 논리 속에 마을의 공적 권리는 개인에게 할양되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제주의 마을공동체는 국가와 시장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한 근대화의 물결은 이제 50년을 넘기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수많은 문제를 봉합하면서 근대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제 봉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이르고 있다. 성장과 효율을 위해 구축된 국가와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저성장'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권력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은 붕괴 직전의 상황이고,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겹치면서 사회적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당면한 위기 속에서 중앙집권 대신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익과 사익의 논쟁을 넘어 공유公有, 합유合有, 총유總有라는 법제도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제 3의 길'은 화두話頭에서 내려와 가두街頭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부침 속에서도 제주 해녀와 어민들은 제주 바다를 지켜왔다. 근대화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제주 바다를 지켜냈다. 마을 어장을 사유, 독점하려는 유혹과 압력을 견뎌냈고, 소유권자인 국가로부터 연안해안의 이용권을 확보하였다. 조합을 조직하여 자치규약을 만들고 준수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였고, 공존의 정신으로 바다 자원의 고갈을 막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길을 이어간 것이다. 국가와 시장을 거스르며 일구어 낸 제주의 바당밧은 자치와 공존으로 이루어 낸 제 3의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열정 속에는 근대성에 대한 정서적 불편함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희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주 바다밧에 대한 본 연구진들의 관심 또한 과거 회귀적 취향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대를 넘어설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는 역량 밖의 일이다. 다만 근대성의 쌍생아인 진보적 역사관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제주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활사에 시선을 둠으로써 '자치와 공존'이라는 가설의 증언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 바다밧 연구의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자치와 공존'의 온전한 윤곽은 제주 해안마을 전체 조사를 통해 그려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가설의 반증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 가설의 정합성을 시험해 보는 것은 본 연구에 남겨진 과제이다.

2. 정책제언

제주 이민자의 수가 10만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인과 이주민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상호교류가 쉽지 않다. 문화 이질성의 누적은 상호고립과 상호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인과 이주민의 문화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제주인과 이주민들은 제주의 풍경을 향유하면서 각 자의 위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경쟁사회가 부과하는 피로감이 다르지 않다면 그들이 찾는 위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주인과 이주민의 상호 교류의 장에서 '제주 바다밧'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제주 바다밧' 속에 공존과 상생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에 있는 국가 유물들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 생활사와 관계된 유물들은 아직도 방치된 것들이 많다. 교육과 답사 등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생활사에 대한 제주 도민의 관심을 높여간다면 제주 생활사 유물 보호를 위한 정책입안의 바탕을 될 것이다.

후 기

북촌의 '도댓불'(등명대) 위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어즉위기념등명대(御卽位紀念燈明臺), 대정大正 4년 12월' 일본 다이쇼텐노(大正天皇) 즉위 4년을 기념하여 세운 등명대라는 말이다. 1915년에 누가 이 비를 세웠는지는 모른다. 다만 북촌에 '기무라터'라 불리는 곳이 있어서, 그 곳에 살던 일본인 '기무라'라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기념비를 누가 세웠는지 보다는 기념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자. 한국의 유명한 시인은 조천의 '연북정'戀北亭을 보며 이렇게 노래했다. '연북정 지붕 끝에 고요히 앉은 아침 이슬이 되어 그대를 기다리나니.' 임금을 향한 절절한 연모에 기댄 그리움이 그 깊이를 더하는 듯하다. '연북정'이나 '도댓불'의 기념비가 지향하는 님은 명확하다. 조천과 신흥 사이에 있는 엉장매코지는 설문대 할망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으려다 실패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엉장매코지 또한 님을 향하고 있다. 앞의 두 사례는 지배계급의 님이고, 엉장메코지는 민중의 님이다. 하지만 님을 향한 시선은 모두 제주 밖을 향하고 있다.

절절함도 없고, 깊이도 없다. 하지만 여기 지척의 님을 향한 노래가 있다. 함덕리에서 전승되는 '멜 퍼낼 때 부르는 노래' 한 토막이다.

놀당 갑서 자당 갑서
달도 좋고 날도 좋다
관콧에서 놀던 님도
샛바닥에서 놀던 님도
올레코지에서 놀던 님도
큰바닥에서 놀던 님도
말둥이동산에서 놀던 님도
서모코지에서 놀던 님도
다려모루에서 놀던 님도
오늘일랑 다덜 모영
먹고씨고 먹고씨고
저 달이 지도록 놀당 갑서

제주의 님은 가까이 있다. 하지만 님이 놀던 자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 제

주의 님이 조선이나 일본보다 더 멀어 보이고, 시인의 시심詩心보다 더 깊어 보이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고광민, 2004a,『제주도포구연구』, 도서출판 각.
고광민, 2004b,『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고광민, 2016,『제주생활사』, 한그루.
함덕읍, 2017,『함덕 향토지』.
제주특별자치도, 2012 『조천읍 역사문화지』.
고광민, 1992, 제주신문 기고문‘ 제주 바다밭 삶과 역사’

■ 미발표 원고

고광민, 1990~2000a『해녀노트,1』.
고광민, 1990~2000b『바다밭 이야기1』

Abstract

The workplace in the sea is called "Bada-bat" (Sea-Field) by the people in Jeju. They have been doing cooperative fishery in the 'sea-field' unlike 'land field'. That is not only because the 'sea-field' is the commonland of a village, but because they have to cope with the ocean conditions that are changing every minute. A good communication is needed for a successful 'cooperative fishery'. The language and the name is fundamental for a good communication. In this sense, the search for the names of 'sea-fields' is the first step toward the successful 'cooperative fishery'.

There are a lot of 'sea-fields' on the seacoast of Jeju This is the result of the hard work that they would like to reflect the complexity of the ocean conditions such as the direction of the wind, the tidal current, the terrain features, the variety of marine products and so on. The people in Jeju have cultivated the 'sea-field' for generations in order to compensate the poor surroundings of the volcanic island.

As of 2018, there are about 101 fishing villages in Jeju. Each fishing village has approximately 50 to 60 'sea-fields' that have been handed down.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sea-fields' in Jeju exceeds 5,000 by simple calculation. Many of these sea-fields convey the unique history of the village through their own names. They also show the history of 'autonomy and coexistence' of the coastal villages through the structure of their history, and convey the universal history of mankind that is nature's challenge and human response. However, the 'sea-field' of Jeju refuses to stay in the past heritage. The sea-fields of Jeju are still alive with the sea women and fishermen, and waiting for their history to be woven into a new 'place of sea-field (Batszari)' in the view of the coming future.

This study investigates and records the names of the 'sea-fields' and life history in 5 coastal villages of Sinchon, Jocheon, Sinheung, Hamdeok and Bukchon in Jocheon - e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generality of the mode of production and cultural style through the hypothesis of 'autonomy and coexistence' in order

to gai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coastal village life history. In addition, it examines how 'autonomy and coexistence' forms variation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specificity of production style due to difference of soil and coastal condition, and how the 'autonomy and coexistence' is supplemented through examples of conflict and coordinati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고광민
공 동 연 구　　고승욱
공 동 연 구　　박정근

제주학연구 51

제주 해안마을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조사 연구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8년 11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097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OO인쇄사

ISBN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